

# 킹스캐년의 아름다운 밤 “잊지 못할 거예요”

남가주 총동창회 노동절 가족캠핑 행사, 170여 명 국립공원 캠핑, 등산, 관광 즐겨



【기사: 이종호 (인문대 81) 사업국장】

미국에는 2019년 현재 모두 61개의 국립공원이 있다. 국립공원이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 걸쳐있는 데스밸리, 세쿼이아와 붙어있는 킹스캐년까지 치면 9개나 된다.

캘리포니아의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은 요세미티와 세쿼이아다.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인 엘로스톤에 이어 둘 다 1890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킹스캐년은 세쿼이아와 요세미티 사이에 있는 산악 지역으로 1940년에 국립공원이 됐다. 지금은 보통 세쿼이아와 합쳐서 보통 '세쿼이아-킹스캐년 국립공원(Sequoia & Kings Canyon National Parks)'이라 부른다. 지역이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숙소를 정하면 이 일대 주요 볼거리도 하루에 모두 둘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킹스캐년은 요세미티나 세쿼이아에 비해 유명세는 떨어지지만 장엄한 자연만 놓고 보면 결코 이들 지역에 뒤지지 않는다. 하늘을 찌르는 큰 나무들, 만년설로 덮인 호수, 팔팔팔 흐르는 폭포와 거대한 바위, 계곡, 야생동물은 오히려 방문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곳에서 더 잘 만끽할 수가 있다.

미국 국립공원이 대개 그렇듯 킹스캐년도 참맛을 조금이나마 즐기려면 적어도 2~3일은 숙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여름철, 혹은 연휴 성수기 땀 숙박시설을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캠핑장도 곳곳에 있긴 하지만 역시 연초에 동이 나고 만다. 이게 중요하다. 올해 서울대 남가주총동창회 가족캠핑 행사는 바로 그 어렵다는 국립공원 한 복판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2019년 노동절(Labor Day) 연휴인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남가주 동문과 그 가족 170여명이 2박3일 일정으로 '아주 특별한

연휴'를 보냈다. 킹스캐년 국립공원의 중심인 그랜트 그로브 빌리지 일대를 거의 통째로 전세를 냈다. 이를 위해 임원진들은 이곳의 대표적 숙박시설인 존 뮤어 라지(John Muir Lodge)의 룸 17개를 비롯, 그 주변으로 캠프캐빈 6개, 전기 없는 텐트캐빈 15개를 미리 예약했다. 그것도 모자라 개인 텐트를 칠 수 있는 캠프사이트까지 여러 곳을 확보했다.

어떻게 170여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었을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에 입각한 한귀희 회장의 헌신적인 열정과 임원진들의 물려줄 줄 모르는 ‘무대표’ 돌격 정신이었다. 지난 해 가족캠핑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해 장장 1년에 걸친 긴 기간 동안 몇 번에 걸친 현지 답사와 예약 시도, 공원 관계자 설득 과정을 거쳐 힘겹게 이뤄낸 결실이었던 것이다.

사실 이번 남가주 총동창회 가족캠핑 행사

는 장소 확보 하나만으로도 90%는 성공이었다. 정말 그랬다.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하지만 쉽게 가 볼 수 없는 곳, 그것도 미국 최대의 경치와 풍경을 갖춘 국립공원에서 이들 밤이나 묵을 수 있게 됐다. 그 자체에 참석 동문들은 모두가 감동했다.

캠핑 행사 현장 일정은 여느 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첫날 저녁 식사는 현 회장이 속한 미대 동문회가, 둘째 날 저녁은 차기 회장이 속한 약대 동문회가 준비한대로 푸짐하게 먹고 마셨다. 식사 후엔 간단한 여흥으로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 일부 동문들은 조용히 밖으로 나가 깜깜한 밤하늘, 쏟아질 듯 총총한 별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둘째 날은 하이킹조와 관광조로 인원을 나눠 등산과 관광으로 저마다 보람된 하루를 보냈다.

김동근 산악대장의 인솔 하에 A, B 두 개조로 나눠 출발한 하이킹 팀은 시원한 계곡물

>> P 6 계속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노명호 (공대 61), 차기회장

### Plastic 병물 (Bottled Water) 시비

나는 대학에서 수처리에 관한 공부를 하고 지난 50 여년간 미국에서 Civil & Sanitary Engineer로 Water Infrastructure에 관계 되는 용역 및 설계 일을 하다 2018년 은퇴 했다. 수질 박사는 아니지만 내가 물에 관한 Career에 오래 몸을 담았기에 "Plastic 병물 시비"에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Plastic 병물에 관한 시비는 오래 전에 시작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일가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쉽게 동의하리라고 본다. 이 병물 시비에 관해 쓰면서도 자기당착에 빠진 나를 보게 된다. 왜냐하면 아직도 나는 Plastic 병물을 가지고 다니며 마시고 우리집에는 Costco 에서 사온 Plastic 병물 Package가 덩그러니 차고 선반에 올라가 있고 빈 Plastic 병들이 Recycle Bin에 던져지고 있으니 말이다.

미연방정부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r EPA) 는 가정에 분배되는 Potable Water or Tap Water (먹는물)의 수질을 엄격하게 규제 관리하고 있다. EPA Rule 은 유기물, 무기물, 소독후 잔류 염소, 또 미생물을 규제하는 Primary Drinking Water Standards와 다량이나 아니면 인체에 크게 해롭지 않은 Inorganic Compounds를 규제하는 Secondary Drinking Water Standards가 있다. 식수를 공급하는 Water District이나 City Government는 Constant Monitoring과 엄격한 Testing을 통하여 EPA 가 요구하는 수질을 유지 관리해야한다. 물론 어쩌다가 상수원이 오염되거나 오래된 집안 Distribution Copper Piping에 사용된 납성분이 물에 녹아 Tap Water가 오염될 수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그런 확률은 대단히 낮다.

병물은 2000년도에 들어와서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7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소비한 병물이 14 billion gallons인데 이는 미국인 1인당 1년에 43 gallons의 병물을 소비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양은 500cc Plastic bottle로 계산하면 미국인 1인당 일년에 325 bottles (거의 매일 한병)을 소비한다는 이야기이다.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병물 소비량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

가한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2016년에 벌써 병물 소비량이 미국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인도의 병물 소비량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병물은 우리의 생활에 상당한 편리를 제공

"Plastic 병물이 값이 싸다고 낭비하는 습관을 버리고 물병에 Tap Water를 채워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길러야..."



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물병없이 Picnic이나 등산을 생각할 수 없고 물병없이 중국이나 인도 또는 남미와 동남아 여행을 생각할 수없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병물이 생활의 편리와 인류건강에 기여하는바도 크다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심각하게 병물에 관해 시비를 하고저 한다.

첫째 모든 병물이 수도물 (Tap Water) 보다 수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선 병물은 Tap Water처럼 엄격한 Test 없이 그리고 또 Source of Water를 밝히지 않고 생산 판매 할 수있기에 어디서 어떤 물이 Plastic 병에 담겨졌는지 모르고 또 생산과 Bottling 과정에서 수질 오염에 더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Plastic Bottle에서 화학물질이 용해 (Leaching) 한다는 사실이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Study는 Plastic 병물 1 Liter에는 평균 10개정도의 머리카락 두께의 Plastic Particles이 들어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Plastic Particle의 용해는 물병 보관 시간, 온도 그리고 햇빛에 얼마나 노출되었느냐에 달려있다고, 그래

셋째는 Plastic 물병은 지구온난화에 상당한 공헌을 한다는 사실이다. 예를들어 미국인들은 Fiji 나 Evian 같은 브랜드 병물을 선호하는데 그 엄청난 양의 병물을 Container에 넣어 태평양 또는 대서양을 건너 운송하는데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당하다는 사실이다. 물은 미국이나 Fji 에서나 같은 방법으로 Bottling을 하는데... 다같은 H2O가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너왔다고 왜 더 비싼값에 팔리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지구 시민으로서 Plastic 병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할까 생각을 해보았다. Plastic 병물이 값이 싸다고 낭비하는 습관을 버리고 물병에 Tap Water를 채워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미국이나 서부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Tap Water(수도물)을 마시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가끔 수원에 따라 칼슘 성분이 있어 물맛이 좀 안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칼슘은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다.

미국, Norway, 또는 Canada 같은 북반구 나라들을 여행 할때는 Tap Water를 마시고 마초병같은 빈병에 Tap Water를 담아 다녀야겠다. 실제로 북반구 나라들의 Tap Water는 Cold & Fresh 하고 병물보다 훨씬 맛이 좋다는 경험도 많이 했다. 나만이라도 앞으로 더 빈 Waste Plastic bottle 생산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생각이이다.

결론적으로는 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나는 모든 병물 Bottlers 에게 도전한다. 빨리 Biodegradable 하거나 쉽게 간단히 Recyclable 한 용기에 물을 담아 물장사를 하라고...

또 심각한 문제는 빈 Plastic 물병은 경제적인 재활용(Recycle)이 어렵다는 문제다. 그래서 전세계에서 버려지는 빈 Plastic 물병은 전문학적인 숫자이고 버려진 빈병들은 지

구 전체 특히 강과 해양 오염의 주범이 된지 오래이다. 앞으로 중국, 인도, 또 아프리카가 서구화 되면서 훨씬 더많은 Plastic 물병이 생산되고 또 버려지고 그결과 더많은 물고기들이 Plastic 물병과 Plastic 쓰레기에 노출되어가고 있다.

여러 동문들은 Great Pacific Garbage Patch (GPGP) 에 대해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 GPGP는 Hawaii와 California 중간에 Plastic 쓰레기로 만들어진 1.6 Million Square Meter size의 떠있는 거대한 Plastic Waste Island 이다. 더 놀라운사실은 비슷한 Plastic Waste Island가 대서양과 인도양에도 있고 해마다 더생긴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지구 시민으로서 Plastic 병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할까 생각을 해보았다. Plastic 병물이 값이 싸다고 낭비하는 습관을 버리고 물병에 Tap Water를 채워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미국이나 서부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Tap Water(수도물)을 마시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가끔 수원에 따라 칼슘 성분이 있어 물맛이 좀 안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칼슘은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다.

우리가 지구 시민으로서 Plastic 병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할까 생각을 해보았다. Plastic 병물이 값이 싸다고 낭비하는 습관을 버리고 물병에 Tap Water를 채워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미국이나 서부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Tap Water(수도물)을 마시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가끔 수원에 따라 칼슘 성분이 있어 물맛이 좀 안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칼슘은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다.

미국, Norway, 또는 Canada 같은 북반구 나라들을 여행 할때는 Tap Water를 마시고 마초병같은 빈병에 Tap Water를 담아 다녀야겠다. 실제로 북반구 나라들의 Tap Water는 Cold & Fresh 하고 병물보다 훨씬 맛이 좋다는 경험도 많이 했다. 나만이라도 앞으로 더 빈 Waste Plastic bottle 생산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생각이이다.

결론적으로는 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나는 모든 병물 Bottlers 에게 도전한다. 빨리 Biodegradable 하거나 쉽게 간단히 Recyclable 한 용기에 물을 담아 물장사를 하라고...



### Presidential Corner

### 백성은 무겁고 군주는 가볍다



신용남 (농대 70), 회장

### 행복은 선택인가?

<유기천 전 모교 총장 기념사업회 심포지엄, 서소영 동문 강연 내용 >

시카고 동문회 후원



서소영 (인문 78)

"행복은 선택이다"라는 말은 많은 뜻을 포함한다. 행복이 선택이라면, 누구나 본인이 마음을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이고, 우울하고 불행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행복하다"라는 상태를 감정이라고 본다면, 감정이란 내 마음대로 바꾸기 힘들다는 점에서 선택이라 말하기 힘들다. 감정이란 외적, 내적 자극에 대해 일어나는 자동적 반응이기 때문에, 슬픔이나 불안 같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단순히 기쁜 감정으로 바꾸기 힘들다. 흔히들 "슬퍼하지마" "불안해하지마"라고 감정을 바꿀 것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마치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아파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각 개인 별로 감정의 기복, 강도가 매우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생리적 또는 신경화학적 이유로 힘든 감정을 겪을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어린 시절의 경험, 트라우마 등의 상처로 어쩔 수 없이 불안이나

노, 등 여러가지 다른 감정이 일어날 수 있다. 사람들은 자라나면서 쌓아온 자신과 세상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치면 자동적으로 특정 스타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굳어지기 쉽다. 행복한 감정을 유발시키고 싶다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점검해보면서 "정말 나를 싫어해서 그런걸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일까?" 등을 자문해 보면서, 자신의 부정적 생각 패턴을 고쳐나가는 것이 좋다. 특히, 감사하는 습관은 생각을 바꾸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감사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뭘까를 찾아보는 과정이므로, 부정적으로 굳어진 사고 패턴을 바꾸는데에 유익하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세로토닌 등 행복한 감정을 유발하는 신경 화학물질인 분비된다고 한다.

또한, 행동을 바꾸는 것도 행복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울할 때는 그냥 방에 틀어박혀 아무 일도 안 하고 싶어하고, 불안한 사람들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자주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외, 요가, mindfulness 명상, 각종 몸을 움직이는 취미 생활 (댄스, 정원 가꾸기, 요리)도 행동으로서 행복을 증진시키는 좋은 방법들..."

우울한 감정을 겪고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한국인의 경우, 자기 자신의 감정을 불편해하며 감정의 자각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건강하지 못한 태도이다. 감정이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과 남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인가? 당장 감정 자체를 변화시킬수는 없지만, 감정에 영향을 주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꿈으로서, 행복한 감정이 유발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우선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통명스럽게 대했을 때, '저 사람은 날 안 좋아해', '저 사람은 무례해', '저 사람 무슨 일이 있나봐' 등의 여러가지 종류의 생각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나를 싫어해" "세상에는 못된 사람들 밖에 없어"라는 생각까지 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갖는냐에 따라, 슬픔, 불안, 분

은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그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당장의 슬픈 감정이나 불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장기적으로는 우울과 불안이 더 심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움직이고 싶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도, 스스로를 부추겨서 운동을 하거나 모임에 다녀오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한다. 운동은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우울증, 불안증, 치매 등에 매우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자주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그외, 요가, mindfulness 명상, 각종 몸을 움직이는 취미생활 (댄스, 정원가꾸기, 요리)도 행동으로서 행복을 증진시키는 좋은 방법들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바꾸거나 없앨 수는 없지만,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함으로써 행복으로 다가갈 수 있다.

한 국가의 형태를 갖추어져던 시대 부터, 정치가와 그 시대의 철학자는, 국가란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누구의 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느냐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국가는 직접행동하지 않으며, 운영자의 의지에 의해, 그 국가의 목적이 드러나기 때문이라 했다.

누가 국가를 다스려야 하는가의 일반적인 대답은,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에게 국가의 존재 목적은 텔로스, 정의 였다. 국가는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인간 공동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정의를 실현하려면, 철학자 즉 현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 했다. 철학자는 무엇이 선이며, 정의인지를 아는사람이기 때문이라 믿었고, 그가 요구한 것은 학식의 지배, 즉 현자의 지배 였던 것이다.

동시대를 살았던 맹자는 플라톤과 달리, 지식의 지배가 아닌, 덕의 지배를 요구 했다. 맹자가 말하는 덕은, 백성의 고통을 함께하는 '측은지심' 불의를 보고 부끄러워 하고 악을 미워하는 '수오지심' 그리고 겸손하며 남에게 기회를 양보하는 '사양지심'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시비지심' 이라 했다. 맹자는 이런 마음을 갖춘 군자가 왕이되어,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나라의 백성은 평화롭게 자작한다고 했다.

모천회귀라 했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두 고운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더욱 귀기울여 지는 것은 아마도, 회귀의 본성 때문인 듯 하다.

약 5 년전 세월호 사건으로 들어난 부끄러운 자화상, 즉 타락한 종교, 부패한 관료 그리고 무능한 정부에 대한 백성들의 절규가 "이것이 나라냐?" 이어지며, 결국 헌정사에 없던, 대통령 탄핵의 기폭제가 되었음을 기억한다.

그 후 새 정부가 들어선지 2 년여가 지난 현재,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지도자 그룹의 자격은 또한 어떠한가? 한 국가의 법을 관리하며 정의롭게, 개혁을 하겠다는, 한 각료지명자의, 청문회 준비에 들어난, 가족의 편법, 특혜 등, 도덕성 및 자격의 시비로 한 바탕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진보이념의 집권 여당과, 보수의 야당 진영으로 나누어 국가를 운영해야 할 자의 자격 시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허탈감에 빠진 소외 계층은 현 정부 운영자의 위선적 모습과 행동에 분노하고 있는 듯 하다.

맹자는 백성은 무겁고 군주는 가볍다며 군주를 민심의 바다 위에 뜬 배와 비유하며, 물을 거스르면 배는 뒤집혀진다고, 위정자에게 민심을 경계토록 했다. 특혜 받은 위치에 있는 특수 계층에 요구되는 사회에 대한 더

높은 책임의식을 주문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교훈을 다시 한번 묵상 해야 할 때인 듯 하다.

기회는 평등하고, 절차는 공정했으며, 그 결과는 정의로운 국가를 추구한다는, 국가의 텔로스를 잘 실현하려면, 운영자의 생각과 행동이 그에 어울려야 할 것이다. 나라를 책임질 임을 지고 관리 하겠다고, 결심이 비장한 관료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다, "수신제가" 를 주문 한다. 어느 사람의 인격을 보고 싶으면, 그의 친구를 먼저 보라 했다.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받는 사이이기 때문 일 것이다. 지금은 그의 자식의 삶을 보라 하고 싶다. 같은 맥락으로 말이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법테두리 아래서 불평등 하게온, 기회를 잡기위해 최선을 다 했을 뿐이라면, 더 이상 대화를 나눌 필요를 못 느낀다.

공자는 눈어 위정편에, 나이 50 이 되면 하늘의 소리를 들을수록 있어야 한다 했다. 최근의 청문회를 임하는, 예비 각료에게, 민심이 바로 천심 임과, 그 민심을 들을 줄 알 나이가 되었음을 일깨워 주고 싶다.

최근에 작고한 신영복 교수는 그의 마지막 강연을 묶은, "담론" 이라는 책에서 공부하는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을 사람을 통해 연결하는 노력이며, 머리에서 가슴을 거쳐 발로 연결하는 힘되고 긴 여정이라고 말을 했다.

아마도, 진영논리에 몰입해 있는 지식인들은, 열심으로 얻은 지식으로, 가슴을 뛰어 넘어, 합법적으로 주어진 기회를 이기적인 생각으로, 실익을 위해 바로 행동으로 옮긴 모양이다. 필요한 공정한 절차는 그들에게 그저 거치장스러운, 타인에게만 강요되는 과정으로 생각 되었던 모양이다.

또한 진영 논리에 포로가 된 듯한 한국의 보수와 진보 진영의, 타협할줄 모르는 그들만의 종교같은 절대적 신념을 듣고 있자니, 독일의 루터교 출신 종교학자 라인홀드 니이베 의 " 도덕적인 인간과 비 도덕적인 사회, Moral Man & Immoral Society" 저서에서 ' 비교적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인간들이, 그들만의 진영의 가치로 뭉쳤을때 그 집단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비 도덕적 죄악을 부끄러움 없이 자행한다' 는 현대 역사의 교훈을 들려주고 있다.

이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인류 호모 사피엔스에게 주는 선각자의 교훈을 통해, 인류 역사를 성실하게 돌아보며, 머리에 지 가슴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회를 바란다. 아울러 정의로운 국가의 텔로스를 가슴으로 이해하는 높은 윤리와 도덕률을 간직할 사람들과 그들의 도덕률이 집단 진영 속에 활활여 가지 않고 운영 되는, 그런 국가를 보고 싶은 나의 소망은 한낱 헛된 꿈이런가?

###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ua.org

###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를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 동창회비

### 온라인 납부 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이항렬 (법대 57)  
논설위원장

우리가 이민은 미국과 고향인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을 보면 한심하다. 두나라 모두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로 분열되었고, 두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을 융합하기보다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들이며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로 규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정적들을 극좌파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로 몰고 문 대통령은 정적들을 수구 골통 보수파, 친일파로 비난하고 있다.

두 지도자는 본인들의 정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동 정치(demagogic), 종족(ethnic)에 의한 배타주의, 지역에 치중한 인기영합주의(populism) 정치를 시행하고 있다. 두 대통령은 서로 보수 (트럼프)나 진보(문재인)을 대표한다고 하나 사실 두 지도자는 참다운 보수, 진보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는 작은 정부, 비판세(anti-tariff), 흑자 예산을 찬성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반대로 매년 1trillion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로 미국의 부채를 늘렸는데, 중국과의 관세 인상 싸움으로 자유 경쟁, 자유 시장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진보, 애국파라 자처하나 민생경제를 파탄하는 비자유시장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본인 지지층의 임금 인상이나 혜택에만 급급하고 민생 경제나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

현재 한일 경제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아베 총리의 책임도 많겠으나 문 대통령의 일본 극우파에 대한 반감과 반일(反日)이라는 민족적 감정을 이용하여 차기 선거 전력으로 쓰는 정책도 악화 현상에 기여하고 있다. 악독한 과거 일본 식민지 정책을 증오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는 난폭한 김정은과 경제협력을 하여 일본에 대항하는 정책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구상이다. 두 지도자는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나 사실 과반수의 국민들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해 하는 것이 두 국가의 현실이다.

인기 영합주의의 상투적 수단인 신문, 방송, 인터넷, 트위터, 유튜브 개인 방송 등을 총동원해 자기의 의견과 세력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 조롱의 메시지를 쏟아내어 사회를 분열시켜 민주주의의 근본 목적인 자유, 평등, 우애 정신을 말살시킨다. 또한 미국에서는 러시아, 한국에서는 북한 정부가 조작하는 흑색선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전제주의적(authoritarian), 독재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런 비민주적 정치지도자들은

## 미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

거의 논란이 많은 선거를 통해 집권했으며, 집권을 하자마자 그들의 공통 정책은 각급 법원을 자기편으로 매우고, 이어서 공영방송 장악, 비판 언론 추방, 종족적 민족주의에 따른 역사교육, 정치 반대자 투옥, 삼권분립 무시, 야당 탄압 등으로 치달는다.

하바드의 정치학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트의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20세



## "극우나 극좌로 치닫는 지도자들은 국민을 양극화하게 되며 그런 정치 영향 밑에서 국민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하게 되며 서로 비난하는 사회가..."

기에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군사 쿠데타에 의해 무너졌지만, 그 이외에 선거에서 당선된 지도자들도 본인을 권력유지를 위해 권위주의적인 독재자로 변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잠재적 독재자는 자신의 반민주적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경제 위기나 자연 재해, 특히 전쟁과 폭동, 테러와 같은 안보 위협을 구실로 삼는다"라고 했다.

이런 예측을 불행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현하고 있는데, 언제나 그는 본인 말이 옳고 반대 여론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우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즈의 팩트체크(Fact Check)에 의하여 2년이 안된 기간 동안에 벌써 거짓말을 12,000회 정도 하였으며 바로 8월 25일에 있었던 G7 회의에서도 자기가 독일, 인도 수상과의 회의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 회의에 참석 못하였다고 했는데, TV 방영에 그 두 수상은 그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

다. 그는 항상 독재자인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을 훌륭한 지도자로 칭송하며 우방 민주 국가 지도자들을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기치 아래 반대세력을 적대시하며 사회 통합을 저해했다. 트럼프는 반대 후보자였던 힐러리를 감옥에 보냈다고 으르렁거렸으며, 문재인은 박근혜와 이명박 두 전 대통령의 감옥행을 눈감았다.

선동적인 정치가들이 궤변과 거짓말을 밥먹듯하는데도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빈부격차, 취업난 문제, 감세 등 유언비어를 잘 이용한 감언이설에 속아 그런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소위 민주주의 국가 진영의 대표 미국 대통령과 군사 독재를 종결시키고 민주주의를 빨리 성립했다는 한국 대통령이 최악의 지도자 감정들을 훌륭한 지도자라고 명칭하며 불쌍한 인

대통령 선거에서 경험했듯, 일반 국민투표에서 3백만표를 더 받은 힐러리가 트럼프에게 패배하였다.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알 고어(Al Gore)가 국민투표에서 더 많은 투표를 받았으나 조지 부시(George W. Bush)가 당선되었다.

2016년에는 러시아의 미국 투표 개입, 간섭에도 불구하고 힐러리가 이겼고, 2000년에는 대법원의 판결로 플로리다 전체 재개표가 저지되었었다. 현재 미국 시민들은 쉽게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데도 230년 전에 채택한 간접선거제를 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인 'One Man, One Vote'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미국 헌법 2조 1항에 의하면 각주의 선거표 배정은 그 주의 하원의원 수와 상원의원 수를 합친 수라고 하였다. 와이오밍 같이 작은 주들도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동등하게 2명씩의 상원의원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지역 감정이 중요한 변수이며, 남북통일보다 먼저 장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동서 융합이 필요할 것 같다. 인기 영합주의가 판을 치며 허황된 약속으로 또는 거짓말로 균형을 선동하여 광우병 사태나 촛불시위 같은 것이 크게 정치 판도를 결정하니 한국의 민주주의가 확고할 수가 없다. 민주주의에서는 자유, 평등이 잘 조화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은 너무 평등만 찾고 자유가 소외되는 것 같아 걱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통일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가 희생되며 자유가 없어지는 통일은 절대 반대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내년 11월에 대통령 선거, 한국에서는 내년 4월에 총선거가 실시되는데, 두 나라의 장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특히 미국 대통령은 국내 정치 뿐만아니라 세계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년 선거는 세계 정세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선거이다. 전세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후 현상, 이민 문제, 백인우월주의, 테러리즘, 견잡을 수 없는 핵무기 경쟁, 중상주의 재등장, 그의 부산물인 관세 싸움 등, 세계 200여 국가들이 다 뭉쳐도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훌륭한 세계 지도자, 미국의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북핵 문제, 빈부 격차 등을 해결하여야 하며 한국이 강대국 세력 확장의 각축장이 다시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내년에 당선되기를 바란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면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과 한국에서 자기만 옳다는 자아 도취자(Narcissist), 선동자(Demagogue), 비타협자, 정치적 못한 지도자들은 대통령으로 당선시키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주장과 이념에 따라 극우나 극좌로 치닫는 지도자들은 국민을 양극화하게 되며 그런 정치 영향 밑에서 국민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하게 되며 서로 비난하는 사회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Peace be with Korean in Korea & Korean American in the United States.

전 쉐퍼드 대학 국제정치학 석좌교수 전 재미 한국정치학회 회장



윤기향 (법대 65)

미국의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금과옥조가 하나 있다. 그것은 "Publish or perish"이다. "논문을 출간하든지 아니면 학계에서 사라지든지"라는 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다. 테뉴어 (종신교수직) 제도가 오래 전부터 확립된 미국 대학에서는 테뉴어를 받기 위한 학자들의 노력이 처절하다. 대학에 교수로 임명된 지 보통 5년 지나면 테뉴어 심사를 받게 되는데 테뉴어 대상이 되는 조교수들은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말도 나온다. 대학에 따라서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테뉴어를 받기 위해서는 양질의 논문을 가능한 한 많이 발표해야 한다. 그러한 고된 과정을 견뎌내지 못하는 배우자는 심각한 가정불화를 겪기도 하고 이혼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한국 대학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구보다는 주로 교육에 중점을 두는 교육중심 대학들이었다. 한국 대학들은 상아탑 속에 안주하는 무풍지대였으며 학문적 경쟁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일부 대학교수들은 폴리페서(polifessor)라는 신종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연구하고는 동떨어진 정치적 또는 돈벌이 활동에 열정을 쏟아붓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학 교수직은 흔히 철밥통이라고 불렸다. 승진은 연구 실적과는 관계없이 연공서열로 결정되는 시스템이었다. 학자들의 명성을 결정하는 것은 연구 실적이 아니라 얼마나 잘 팔리는 교과서를 저술했느냐가 큰 잣대가 되었으며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한 자리하는 것도 소위 스펙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분위기에 변화가 오고 있다. 이제는 많은 대학들이 연구 실적을 중시하는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미국과 비슷한 테뉴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연구 실적을 강조하는 정책이 많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 무엇 보더라도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으며 또한 논문의 질보다는 양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연구중심 정책이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

최근 대한병리학회 학술지(Korean Journal of Pathology)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오양)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었다고 해서 일파만파로 사태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논문이 발표되었을 때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신분이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구과제 관리 시스템엔 그녀가 단국대의 과학연구소 소속으로 박사 학위를 소지한 것으로 나와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연구 풍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대학에서는 저자가 논문에 착수하기 시작해서

일어난 코롱생명과학의 신약인 인보사 개발과 관련하여 당초 보고한 연구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허가가 취소되기도 했다. 간암 치료제로 펙사벵을 개발하고 있던 신라젠이 미국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펙사벵의 임상3상 중단 권고를 받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빨라빨라' 문화에 젖어있는 한국사람들에게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신약 개발에 대한 연구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Publish or Perish"

평판이 있는 학술지 (한 분야에서 보통 상위 20%안에 드는 학술지)에 논문이 수용되어 최종 발표되기까지 2 ~ 3년 (경제학의 경우)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어떤 경우에는 5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상위 20%안에 드는 학술지에 논문이 수용될 확률(acceptance rate)도 일반적으로 15%에서 20% 정도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다는 것

이런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 내의 여론도 침체하고 대립하고 있다. "조국 후보 힘내세요"라는 국민 청원이 30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하면 "조국 후보 사퇴하세요"라는 국민 청원도 20만 명이 넘어서고도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이한 입장은 진영 논리에 따라 철저하게 분할되어 있다는 점이다. 소위 좌파 또는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90% 가까이 조국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며 우파 또

을 설치할 것이다. 그러면 양쪽 2마일에 걸쳐 있는 고객들을 다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유료수를 파는 다른 상인이 이제 이 시장으로 진입한다고 하자. 두 사람은 최대한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중간 지점에서 해변도로를 양분 (각자 2마일을 점유)하기로 하고 먼저 들어온 상인 (갑)은 비치의 오른쪽 2마일을, 나중 들어온 상인 (갑)은 비치의 왼쪽 2마일을 점유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협의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2마일의 중간 지점에 매점을 설치할 것이다. 그러나 갑들이는 자기의 매점을 약간 왼쪽으로 이동하면 더 많은 매출을 올리리라는 것을 안다. 갑순이도 자기의 손님을 뺏기지 않기 위해 조금 더 오른쪽으로 매장을 이동할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갑들이는 다시 더욱 왼쪽으로, 그리고 갑순이는 더욱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두 매점은 해변의 중간 지점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또 한 명이 더 이 시장으로 들어올 경우도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 "한국 대학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구보다는 주로 교육에 중점을 두는 교육중심 대학들이었다.

## 한국 대학들은 상아탑 속에 안주하는 무풍지대였으며 학문적 경쟁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 일부 대학교수들은 폴리페서라는 신종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연구하고는 동떨어진 정치적 또는 돈벌이 활동에 열정을 쏟아붓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은 여간 고역스러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골프나 테니스 대회에서 메이저 대회가 있듯이 각 분야의 학술지에도 메이저 학술지는 정책이 많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 무엇 보더라도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으며 또한 논문의 질보다는 양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연구중심 정책이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

은 여간 고역스러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골프나 테니스 대회에서 메이저 대회가 있듯이 각 분야의 학술지에도 메이저 학술지는 정책이 많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 무엇 보더라도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으며 또한 논문의 질보다는 양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연구중심 정책이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

더우기 조 양이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학위 세탁을 했다면 이는 연구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된다. 그동안 한국에서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연구 방법이나 자료 수집 또는 연구 결과에 조작과 허위기 문제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양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은 세계적으로는 파문을 일으킨 불명예였다. 또 최근에

는 보수진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에 못지않은 비율로 조국 후보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 구조에서는 사실은 왜곡되고 진실은 가려지며 진리는 외면된다.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한쪽 눈으로만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경제이론에 '호텔링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경제학자 호텔링(Hotelling)이 1929년에 경제학술지 Economic Journal에 발표한 논문 "경쟁에서의 안정성"(Stability in Competition)에서 제안한 이론이다. 호텔링의 법칙은 최적 입지 조건에 대한 이론이지만 정치적 선택 등 여러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4마일에 걸친 해변 도로에 음료수를 판매하는 이동매점이 있다고 하자. 매점 주인은 최적의 판매를 올리기 위해 해변도로 중간 지점에 매점

이 이론은 왜 주요수들이 사거리 모퉁이에 모이게 되고 먹자골목이 형성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호텔링이 그의 이론을 발표할 후 호텔링이론은 제품의 선택, 정치적 성향의 분석 등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 '최소한의 차별화 원칙(principle of minimum differentiation)은 생산자들이 왜 비슷한 제품들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또한 호텔링의 법칙은 왜 양당제도 하에서 선거 때가 되면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해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이 조금씩 정책 이념의 중간으로 이동하게 되는지를 설명해준다. 결국에는 이들 정당들의 선거 공약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진보와 보수 진영은 중간 지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만큼 진영 논리에 따라 대립이 심한 나라는 드물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청중 100명을 앞에 놓고 천사가 와서 말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10명은 그를 악마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로 악마가 와서 말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10명은 그를 천사라고 생각한다든 비유가 있다. 이러한 비유는 어떠한 집단이나 사회에서도 한 쪽의 극단적인 입장을 갖는 층이 각각 10% 정도는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극단적인 입장을 갖는 사람들의 층이 훨씬 두터운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국민들이 감정적이거나 감정적인 탓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에서는 중간지대의 층이 얇을 수밖에 없고 타협에 의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대립과 대결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Florida Atlantic University 경제학교수 "연구 논문들이 세계 유수의 경제학술지인 American Economic Review,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European Journal of Finance, Macroeconomic Dynamics 등에 다수 발표되었으며 현재 논문 피인용 횟수가 445회에 달한다. 국내 저서로서는 <<시가 있는 경제학>> (김영사), <<현대거시경제론>> (법문사), <<중견의 논리, 투자의 예술>>(씨앗출판사) 등이 있다.



지역 동창회 소식 및 동문 동정



>> P 1로부터

소리를 들으며 울창한 산속을 걷는, LA 인근에서는 좀처럼 맛볼 수 없는 호사를 누렸다. A조는 킹스캐년의 보석으로 불리는 미스트 폭포(Mist Falls)를 지나 파라다이스밸리 트레일까지 왕복 13마일을, B조는 미스트 폭포까지 왕복 8.5마일을 걸었다. 최용준 총무 국장이 이끈 관광팀은 LA에서부터 타고 온 대형버스를 타거나 개별 차량들을 이용해 세쿼이아-킹스캐년 국립공원 내 유명 호수과 볼거리들을 둘러보았다.



미주동창회 차기회장 노명호 동문, 남가주 회장 한귀희 동문

이번 가족캠핑을 끝으로 올해 남가주총동창회의 큰 행사는 거의 마무리되었다. 이제 10월 19일로 예정된 원로 선배초청 오찬행사만 남았다. 행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동창회 모임은 기쁨으로 모이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다보면 때론 부족한 점,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런 것마저 별로 흠이 되지 않고 흥이 되지 않는 게 또 동창회의 미덕이 아닌가 싶다. 한 번이라도 더 나가 보려 하고, 한 마디라도 더 따뜻한 말 전하려 하고, 한 가지라도 더 내 도움이 필요한 게 없을가 살피는 마음들이 모여서 더 훈훈하고 나오고 싶은 동창회 모임이 된다는 것이



Azalea picnic area에서 저녁식사

○...일부 임원진들과 참석 동문들은 첫날, 둘째 날 모두 밤 늦게까지 삼삼오오 략지로 비에 모여 와인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 특히 손영아, 김경애 동문 등 임원들이 준비한 각종 안주는 단연 인기. 분위기가 무르익자 일부는 함께 무대 앞까지 몰려나가 가무를 곁들이며 광란(?)의 장면을 연출하기도.

<기타 이모저모>

○...저녁 식사와 단체 여흥을 위한 장소 확보를 위해 한귀희 회장은 행사 시작보다 하루 먼저 도착하고 캠핑 첫날 새벽부터 피크닉 장소에 나가 일일이 테이블 보까지 싣워 놓는 등 동문서주, 또 캠핑 첫날 선발대로 일찍 도착한 일부 임원진들은 야외 행사 진행을 위해 접이식 의자 수십 개와 테이블



Hume lake



○...LA에서 차로 5시간 거리인 캠핑장에는 각자 차를 가지고 모였지만 일부 동문들은 동창회에서 마련한 대형 관광버스를 이용했는데. 이들은 오렌지카운티와 LA를 거쳐 오면서 중간중간 지체되는 바람에 예상보다 늦은 시간에 도착. 그 와중에 운전기사마저 약간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는 바람에 둘째 날 관광 일정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다들 걱정. 하지만 둘째 날 관광팀을 인솔한 최용준 동문의 노련한 리드와 기사 달래기로 좋은 분위기로 마감되었다고. 이를 본 참석자들은 역시 사람 다루는 데는 '고수가 따로 있다'는 평들.



등산팀 기념 촬영

○...둘째 날 하이킹팀의 A조는 왕복 13마일, 7시간 강행군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인적이 드문 산정 부근에서 야생 곰을 직접 목격했다며 흥분. 새끼 곰을 데리고 나타난 흑곰이었는데 이중호 동문은 5미터 거리에서 이들을 직접 촬영, 단체 카톡방에 올려 곰 출현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도. 목격자들은 "마침 일행들이 여럿 있어서 그런지 곰이 사람을 피해 달아난 것 같다"며 안도하면서 "그래도 무섭더라, 앞으로 이런 험한 산은 역시 혼자 다녀서는 안 되겠다"며 한마디씩. 끝.



이중호 동문이 촬영한 야생곰



거대한 고목이 즐비한 숲



김인중, 양수진 동문



룻지에서 다음날 행사 준비 미팅을 하는 임원들



"최상의 날씨, 풍성한 음식, 재미있는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

워싱턴주 동창회, 여름 피크닉 개최



참가자 기념촬영

[기사제공: 류성열 (공대 72) 회장]

8월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3시까지 워싱턴주 Redmond에 위치한 Perigo pak에서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여름 동문 picnic이 최고참이신 장석주 선배님이하 70여 명의 동문 부부 및 자녀 참석하에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음식이 빨리 준비되어 12시 전부터 가져 오신 음식들로 풍성한 식사를 즐겼으며 식사 중에 김밥을 가져오신 동문덕에 모두들 맛있는 김밥을 즐겼습니다(예전 저



이른 아침에는 날씨가 굳어 비도 많이 오고 했지만 모임 동안에는 비도 안오고 덥지않아 야외회를 하는데 최상의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Mrs.임원민 (공대 84), 회장 본인 이양춘 (공대 52), 변재준 (의대 78) 및 임소영 (간호대 87)

희 어렸던시절에는 의례 소풍하면 김밥과 사이다가 빠지지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양춘 (공대 52), 김인배 (수의대 59), 장석주 (의대 47 졸업)

식사에 이어 오후 1시 경부터 단체사진 촬영, 간단한 경과 보고 및 연말 송년회 일정 공지 (12월 7일), 일부 동문님들의 Seattle to Portland Bicycle Classic 경험담 소개 및 동문님 자택에서 9월에 열리는 KMA Salon 음악회 초대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게임 순서에서는 매년 행해지는 Bingo, 신발던지기 및 율령선 던지고 받기 게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로 소개된 신발(한 짝을 발로 차서) 던지기 게임은 모든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기 게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시행하는데 신발은 모두가 같은 게임용 슬리퍼를 사용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즐기면서 어느덧 오후 3시가 되어 무사히 여름 야외회를 마치고 되었습니다.

남가주 법대 동창회 8월 모임, 나날히 발전하는 동창회로 자리매김, 참여 동문 70여 명



단체 기념 촬영

[기사제공: 회장 최진석]

남가주 서울대 법대 동문회(회장 최진석)가 2019년 8월 13일 LA 용수산 식당에서 8월 정기 모임을 가졌다. 법대동문 이창신 전회장, 이기준 전회장, 정인환 전회장 외 70여 명이 모였다.

국 서울 법대 장승화 회장 편지 대독, 채규항 (법대) 재무국장 보고 및 8월 생일 파티 등의 순으로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최진석 법대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오찬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음식과 와인을 제공해 주신 신건호 동문 부부께 특별히 고마움을 표현다. 멀리 샌디에고에서 오신 김영한 동문 부부, 오랜만에 참석하신 차상필, 차승철, 원동길, 김동수, 배학철, 김동산 동문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시수

노명호 서울대 미주동창회 차기회장 인사와 민일기 남가주 차기회장(약대의) '취약에서 생명을 살리는 약으로'라는 제목의 강연, 한

영 동문 환영한다. 초청에 참여해주신 게스트와 모든 동문과 서울대 장승화 원장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문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드린다"고 인사를 했다.

전 미주동창회장 오홍조(치대)회장과 남가주 동창회 한귀희(미대) 회장, 성주경 전 상대회장, 한효동 공대회장, 김인중 국장의 다수가 자리를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법대 모임을 응원했다. Mrs. 최진석께서는 집 앞 농장에서 키운 유기농 와인 포도와



생일축하 순서



최진석 회장 인사



노명호 미주동창회 차기회장 인사

민일기 남가주 차기회장 강연

뜻나물을 가져와 동문들께 드리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동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법대 동문회가 날로 활성화되는 모습이 동문님의 화사한 웃음에서 엿볼 수 있었다.





유기천 총장기념사업회 심포지엄 행사 사진, 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 강사 서소영 박사(인문대 78), 5번째 시카고 총영사 김영석(모교 법대 졸업), 6번째 유정호 시 부장, 7번째 김병윤 동창회장

【기사제공: 회장 김병윤】

서울대 시카고 동창회 후원으로 유기천 전 총장(서울대 제9대 총장, 1965년) 기념사업회 미주 총지부(지부장 유정호) 심포지엄이 지난 7월 20일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유기천 전 모교 총장의 민주화 정신과 가르침 계승 발전"**

시카고 동문회 후원, 유기천 전 모교 총장 기념사업회 심포지엄



**"구름 속에서 멋진 스텝을 밟아보아요!"**

시카고 동문회 볼룸댄스 동호회 ("A Walk In The Clouds" Dance Team)

【기사: 회장 김병윤】

올해 5월에 결성되어 활동중인 시카고 동문회의 볼룸댄스 동호회는 현재 총 11쌍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매주 수요일 저녁시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일리노이 Wheeling 소재 시카고 문화회관이며, 59학번부터 98학번까지 모든 회원이 동문들로 이루어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자랑이라고 동호회 회장 김현석 동문(69)은 소개합니다.

본 동문회가 추구하는 어메리칸 스타일의 댄스는 우아하고 품위있는 볼룸댄스로서 부부간의 화합과 애정을 더욱 성숙시키는 데 최고의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본회의 강사 황찬주 동문(84)은 설명합니다. 현재 미국생 활문화회에서 필수적인 왈츠를 시작으로, 스윙, 폭스트로트, 탱고외에도 차차차, 룸바 등

의 라틴 댄스까지 총 6가지 장르들이 2년의 코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스턴 동문회 유소양 동문(61)이 그곳에서 2010년부터 10년 가까이 보급한 볼룸댄스가 이제 시카고로까지 이어져 꽃피우고 있습니다. 일체의 사례 없는 동문회와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적 봉사의 귀중한 정신이 우리 시카고 동문회에서도 이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총 11쌍의 회원들은 다양한 연령층 단계 다채로운 모습으로 연습에 몰두합니다. 어느 남자동문은 자신이 틀린 줄도 모르고 파트너를 야단치느라 바쁘시고, 또 다른 분은 부인의 잔소리에 얼굴이 별경게 변하면서 다음 스텝을 잊어먹기 일수입니다. 어떤 동문은 강사에게 진도좀 천천히 나가달라고 하 시기도 하고, 또 한 분은 왜 이렇게 진도가 느리냐고 불평하기도 하십니다.

본 기념사업회는 최고 지성인으로서 불의에 용감히 항거한 유기천 전총장의 민주화 정신과 가르침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04년 설립된 단체이다. 금년에는 심리상담가 서소영 박사(인문대 78)의 "행복이란 선택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P3 강의 내용 참조)

**시카고 동창회 9~10월 행사 계획**

- ▲ 1. 9/14/2019: 관악클럽 주관 추계 골프대회 (Lake Barrington Shore Golf Club)
- ▲ 2. 9/15/2019: 세종문화회 Benefit Dinner (Drury Lane, Oakbrook, IL)
- ▲ 3. 9/20/2019: 장학생모집 마감
- ▲ 4. 9/21/2019: 독서클럽 모임
- ▲ 5. 9/28/2019: 장학생 선발위원회모임
- ▲ 6. 10/6/2019: 문화회관 기금마련 (김윤태 회장)
- ▲ 7. 10/9/2019: 수요골프
- ▲ 8. 10/13/2019: 제2차 이사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노재성 (법대 58) 동문**



노재성 (법대 58)

남가주 뉴포트비치에 거주하는 노재성(법대 58) 동문이 지난 8월 중순, 서울대 미주 동창회 증신이사전에 합류했다.

70년대 초, University of Illinois-Champaign-Urban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Illinois State University 및 University of Illinois에서 강의도 하고 연구 사업(research project)을 맡기도 하다가 본격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려고 대학을 떠났다.

80년대에 들어와서 투자회사(Venture capital)의 도움을 받아 세가지 사업을 일궈냈다. 미주류를 대상으로 펼친 세 사업이 모두 번성했다. 첫번째는 이스라엘 기술 회사에 팔았고, 두번째와 세번째는 일본의 캐논(Cannon)과 리코(Ricoh)에 사업을 넘겼다.

노재성 동문은 부인 박도심 여사와 고전 음악 감상과 고전 회화 감상 및 수집에 조예가 깊다.

관심있으신 동문들은 회장 김현석 henry-mastercookware@gmail.com 혹은 강사 황찬주 ambrosiohwang@hotmail.com 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미주동창회 증신이사 취임**

80년대에 들어와서 투자회사(Venture capital)의 도움을 받아 세가지 사업을 일궈냈다. 미주류를 대상으로 펼친 세 사업이 모두 번성했다. 첫번째는 이스라엘 기술 회사에 팔았고, 두번째와 세번째는 일본의 캐논(Cannon)과 리코(Ricoh)에 사업을 넘겼다.

노재성 동문은 부인 박도심 여사와 고전 음악 감상과 고전 회화 감상 및 수집에 조예가 깊다.

캠퍼스 시대 학번으로서 본 댄스팀의 주축 멤버입니다. 아직 쟁쟁한 선배들 밑에서 큰 소리는 못내고 있지만 티 안나게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선배님들이 워낙 충실력이 좋으셔서 긴장의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동문들은 회장 김현석 henry-mastercookware@gmail.com 혹은 강사 황찬주 ambrosiohwang@hotmail.com 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차재호 동문덕에서 동문과 함께 정겨운 하루**

미네소타 동창회, 집행부 모임

【기사: 회장, 송세진 (치대 78)】

미네소타지부는 7월 13일의 골프 대회에 이어서 8월 3일 토요일에 집행부 모임을 가졌다. 주요 의제는 학생 여성 간사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계획이었다. 동문들과 타대학출신 학생들의 참여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번 집행부 모임에는 김권식(공대 61) 고문과 송세진(치대78) 회장을 포함한 24명이 참가했는데, 한국에서 미네소타를 방문하고 있는 황정환(공대 65) 동문 부부와 Rotary Club 교환 학생 2명이 guest로 참가했다.

이번 모임은 10 acre 정도의 엄청나게 넓은 잔디밭과 수영장을 갖춘 차재호 (농대 84) 총무이사덕에서 이루어졌다. 주렁주렁 달린 사과가 빨알갛게 익어가는 모습과 Stillwater의 강을 따라서 펼쳐진 몽개 구름, 광활하고 아름다운 backyard모습에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다. 회의전 dinner 시간에 차 총무가 어떻게 직접 수영장, 잔디밭, 채소밭을 관리하는

지 재미있게 설명을 하였다.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택지의 광활함과 아름다움에 모두 감탄을 했지만, 이런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데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날이 어두워지고 헤어지는 길에서, "수영장은 가지지 않는게 좋아. 집에 수영장을 가진 친구를 두는게 좋은거야" 하면서 임원들과 차 총무 모두 깔깔 웃었다.



또 연말 동문회 총회 겸 연말파티를 12월 1일 (일) Executive Hotel, Coquitlam (매년 하는 길



즐거운 오락 게임으로 분위기 리드



은 장소)에서 갖기로 하였으니 많이 참석하 시길 바랍니다.



**조정현 (수의대 58) 동문, 필라델피아 동창회 회장 취임**

"회장 이취임식, 성대히 거행"



조정현 (수의대 58)



조정현 신임 회장, 전무식 전 회장

【기사: 정종택 (상대 60)】

2019~2020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지난 6월 29일 식당 가야필라 인근 블루벨 지역)에서 오후 12시 부터 동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신임 회장은 조정현 동문(수의과대학 58학번)이고 떠나는 동문은 전무식(수의과대학 60학번) 동문이다. 부회장으로는 지홍민 동문이 맡기로 했다.

이임하는 전무식 동문은 이임사에서 신임 조 동문이 비록 자기보다 시니어이지만 과거 서울 수의과 대학에 혁혁한 공훈이 너무 빛나, 특별부탁을 드려 승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임 조 동문은 인사말에서 여러분들의 충실어린 참고조려에 감동되어 받아드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조 동문은 일찍이 미국 정부기관에서 400여명의 직원들을 통솔하며 일을 했고 은퇴 후 서울대 본부와 연계하여 미국 수의사

회(AVMA)로부터 교육인증을 획득하는 일에 수 년간 진두지휘를 한 바 있다. 드디어 서울수의대 졸업생들 미국진출의 문이 활짝 열렸다.

2019년 2월 서울수의대 졸업생부터 미국 수의대 졸업생(NAVLE)과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어, 미국에서 수의사 국가시험에 직접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수의학 교육인증을 받은 대학은 비영어권에서는 서울대가 최초가 된다. 현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미주 총동문회 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조정현 동문에게 공로패를 직접 전달한 바 있다.

비미국 수의과대학 졸업자는 AVMA주관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하거나, 1년 과정의 기초과학자격을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졸업자는 이 과정이 생략된다.

**Mrs. 노현숙 (미주동창회 노명호 부회장 부인) 작가 작품 전시회**

"울동적인 말에 대한 생동감이 넘치는 작품"



노현숙 작가



축하 방문한 동문과 기념 촬영

【기사: 백옥자 조직국장】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진러브 정기 사진 전시회가 중앙일보 갤러리에서 8월 9일-13일까지 24명의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Mrs. 노현숙 (미주동창회 노명호 부회장) 작가님의 작품 3점은 박력있고 울동적인 말에 대한 생동감이 넘치는 작품이다. 그 작품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려운 고지에서 시간을 내어 무거운 사진도구들을 짊어지고 아름다운 광경을 위해서 시간적으로 가장 좋은 시점을 잡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얻는 작품들이다. 자연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볼 수 있는 매 같은 눈이 있는 분만이 그런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미주동창회 11대 김은중 회장 임원진 모임인 11th Club 회원들이 잠시 시간 내어 전시회장을 찾았을 때 열심히 전시되어 있는 작품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시는 Mrs. 노현숙 작가님의 열정이 담긴 모습이 마냥 즐겁기 만하다.

노현숙 작가님은 "시간 쪼개서 졸작을 보러와주시고 과찬의 말씀으로 용기 주시고, 같이 담소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Camargue, France에서 찍은 것입니다.

그 지방의 백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입니다. 남 프랑스의 론 델타에 서식하던 오래된 종자라고 하며, 튼튼하고 민첩하며 힘이 좋은 말이라 합니다. 백마가 해변에서 달리는 모습이 박력 있고 아름다워 세계의 사진사들을 유혹합니다. 원래는 야생하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종자가 등록되고 관리되어 농장주들이 기르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요청이 많아지니 말들을 데리고 나와서 해변, 늪지 호수 등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7월 사진 bworkshop에 참가하여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굉장하 신나고 재미있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모기에 물기긴 했어도, 해 뜨는 아침에, 저는 노을 속에서 뛰는 말들을 촬영할 수 있었던 기회는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웹사이트: www.sajinlove.com

노후에 여가와 취미를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남기고, 훌륭한 작가로서 까지 승화시키는 여자의 맑은 눈과 자태가 은은한 꽃의 향기를 맡는 것처럼 향기롭고 아름답기 만합니다.



### 카네기 축하 음악회 'Summer Fantasy' 후원자 사은의 밤 미주동창회 신응남 회장 칠순잔치 함께 열려, 100여 동문-가족 참석



【기사 편집부】

“사람은 가도 떡을 나눈 순간은 영원할 것” 유난히 높은 하늘과 푸르른 대서양 물결이 아름다운 팔월 셋째 주일, 뉴욕 Up State, New Rochelle에 위치한 Glen Island Harbour Club에서 열린 '카네기 음악회 후원자 사은의 밤' 행사 및 신응남 회장(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칠순 축하연'에 100여명의 서울대 동문 및 가족들이 함께 했다.

이 날 행사는 동문인 연영재 목사의 지도로 시작되어, 그레잇네 교회 양민석 담임목사의 인도로 감사예배를 가졌으며, 특별히 오랜 후원자인 김종을 박사의 축사를 통해 신응남 회장과 그 가족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응남 회장은 환영사에서 “사람은 갈 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떡을 떤던 그 순간들은 기억에 남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며 지금 함께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신 회장은 축하를 위해 와준 귀빈들을 일일이 소개를 시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날, 축하를 위해 마련된 고전 무용 및 판소리 공연은 미주지역 특성상 자주 접할 수 없는 한국전통 춤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참석한 내빈들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선사함으로써 오래 기억으로 남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승희 고전무용가가 직접 준비한 '홍충과' 진도 북춤은 한국고전음악과 고풍스러운 한

복의상이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무대였으며, 판소리 연구가인 홍진욱 명인의 '춘향가' 및 '사철가는 청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으며 은은한 감동을 자아냈다.

홍종만 골든클럽 부회장과 서울대뉴욕회장을 역임한 최철용 회장의 건배사로 이어진 디너타임에는 정성껏 준비된 만찬을 함께 나눴으며, 디너 후엔 가수며 MC인 박진현씨의 진행으로 내빈들이 참여하는 게임 및 래플추첨 행사의 열기가 깊어가는 늦은 여름 밤을 가득 채웠다. 8월 여름 끝자락에 서서, 대서양의 물결을 감상함과 흥겨움으로 물들인 이 날 행사는, 지난 6월22일 개최되었던 카네기음악회 'Summer Fantasy'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보내준 가까운 동문들과 친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고, 동시에 신응남 회장의 칠순을 축하하는 뜻으로 신 회장의 장남 동진(Warner Brothers의 in house conc)과 차남 동일(MD)군 두 아드님이 마련한 행사였다.

신 회장은 1974년 모교 졸업 후 12기 학사장교로 군 복무했으며, 1976년 대한항공에 입사, 1980년 미국 뉴욕으로 이주했다. 뉴욕 Touro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아 1997년 뉴욕 뉴저지 변호사, 1998년 미국 연방법원 변호사를 거쳐 현재 신응남 합동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 관련영상은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OX0qcVjEa\\_U](https://www.youtube.com/watch?v=OX0qcVjEa_U) 로 직접 접속하거나 '신응남' 장로 70회 생신 축하연으로 검색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미국 시인 소개 1



Stanley Barkan

### TO A BROOKLYN POET IMMORTALITY?

TO A BROOKLYN POET  
for Menke Katz

Build me no monuments in Borough Park,  
Statues for wild pigeons to decorate.  
Let no one scurry through my attic  
Nibbling bits and pieces of my life  
Over the inkwells and the broken cups.  
Just let my words live freely in the  
Land of Manna, the third heaven,  
Where only children play,  
delighting in honey milk Of the stars and mooncakes of the angels.  
O Lord, let the insects sing my lyrics,  
The worms feast on the flesh of my soul,  
The furry beasts make selahs for each dawn.

From Brooklyn Poems(Oyster Bay, NY: The Feral Press, 2016)  
Translated into Korean by Rachel S. Rhee & Kyung Hwa Rhee

### IMMORTALITY?

a "footnote" after Donald Lev

I jumped off  
the Brooklyn Bridge.  
Twice.  
But I failed.  
I didn't die.  
The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  
called me up,  
said I should try again:  
If I lived,  
I'd set a record.  
So I jumped a third time  
and succeeded.  
At last I've achieved . . .  
Immortality?

Translated into Korean by Rachel S. Rhee & Kyung Hwa Rhee

Stanley H. Barkan(born 1936 in Brooklyn) is the editor/publisher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which has, to date, published 400 titles in 50 different languages. He is also an original poet and translator, whose own work has been published in 18 collections. His latest: Brooklyn Poems(The Feral Press, 2016). In 2014, he received a plaque from the Korean Expatriate Literature for his contribution to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through exchanges of Korean and American poetry. In 2016, he was awarded the Homer European Medal of Poetry and Art.

E-mail: cccpoetry@aol.com / Tel: 516-868-5635



### 영생

- 다날드 레브씨의 시에 대한 각주

브루클린 다리에서  
뛰어내렸다.  
두 번.  
그러나 실패했다.  
죽지 않았다.  
기네스북협회에서  
전화가 왔다,  
한 번 더 뛰어 보라고:  
만약 살아나면,  
신기록 수립이라고.  
세 번째 다시 시도했는데  
또 안 죽었다.  
마침내 이루었다...  
영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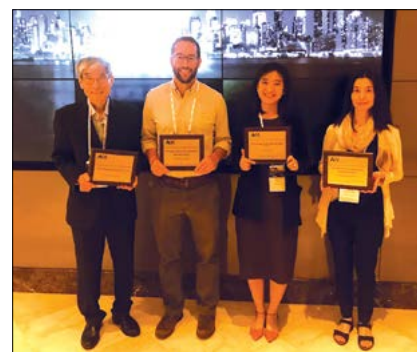
### 스탠리 발칸:

1936년 뉴욕시내 브루클린에서 출생.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출판사 편집인 겸 출판사 사장. 지금까지 400권의 시집을 50개 언어로 발행. 그 자신이 18권의 시집을 펴낸 미국시인이며 번역가로 활동함. 그는 최근에 시집 「Brooklyn Poems」(The Feral Press, 2016)을 출간했다. 한미 간의 시문학 교류를 통해 한국어 시의 세계화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에는 「해외문학사」(발행인: 조윤호 시인)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그는 2016년에 유럽 호머시 문학상과 예술 훈장을 받았다.

### 민병갑 (문리 63) 동문 미국사회학협회 '공로상' 수상, 이민사회 연구 업적 인정



민병갑 (문리 63)



【기사 및 사진 제공=재외한인사회연구소】

퀸즈칼리지 사회학 석좌교수인 민병갑 동문이 8월 13일 뉴욕 맨하탄 웨라톤 뉴욕호텔에서 열린 미국사회학협회(ASA) 아시아아메리칸 분야 2019년 공로상(the 2019 Contribution to the Field Award)을 수상했다. 이 상은 아시아/아시안 아메리카 분과(the ASA Section on Asia and Asian America)에서 매년 수많은 아

시안 아메리칸 관련 학자 중 단 1명에게만 수여하는 상으로 해당 분야 평생 공로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민 교수는 오는 가을 학기부터 퀸즈칼리지에서 '아시아 커뮤니티: 대립부터 화해까지'라는 제목으로 아시아공동체론 강좌를 개설한다. 수업은 오는 27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린다. 문의 718-997-2810

### 뉴욕 퀸즈 칼리지 사회학과 아시아 공동체론 강좌 개설

원아시아재단 (One Asian Foundation)은 재일교포 3세인 사토 요지 (Yoji Sato) 이사장이 사재 100억 엔을 출연해 2009년에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아시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경제, 교육, 문화적 교류를 통해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을 뛰어넘는 아시아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 재단의 목표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아시아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함양을 돕기 위한 교양과목 개설을 세계 여러 국가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40여 개국 390여 개 대학에 아시아공동체론 강좌가 개설되었다. 2019년에는 총 178개 대학에 아시아공동체론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여름, 아시아공동체론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컨벤션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8월 서울에서 열린 제9회 컨벤션에는 32국, 325개 대학에서 650명의 학자가 아시아의 교육과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했다. 아시아공동체론 강좌는 주로 아시아 국가 대학에서 개설되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대학으로 확장되고 있다. 2019년 가을학기에는 뉴욕 플라밍에 위치한 퀸즈칼리지의 민병갑 사회학과 석좌교수가 'Asian Community: From

Conflicts to Reconciliation'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개설한다.

민 교수는 아시아의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국가 및 민족 간의 역사적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전쟁 및 갈등의 역사적 원인을 연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온 유명 석학들을 초대해 한일관계와 한반도의 갈등과 평화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일본 식민지 정책 (Alexis Dudden 코네티컷대 교수), 한국 독립운동 (이수임 일본 류코쿠대 교수), 남북한 간의 대화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아시아공동체론 수업은 퀸즈칼리지에서 8월 27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1:40분부터 약 한 시간 가량 아시아 역사와 사회 분야에 저명한 12명의 교수의 초청 강연으로 진행된다. 12월 3일에는 원아시아재단 설립자인 사토 요지 이사장이 방문하여 강연할 예정이다. 퀸즈칼리지 재학생뿐만 아니라 강연 주제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병갑 교수 (전화번호: 718-997-2810)에게 문의하면 된다.

###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u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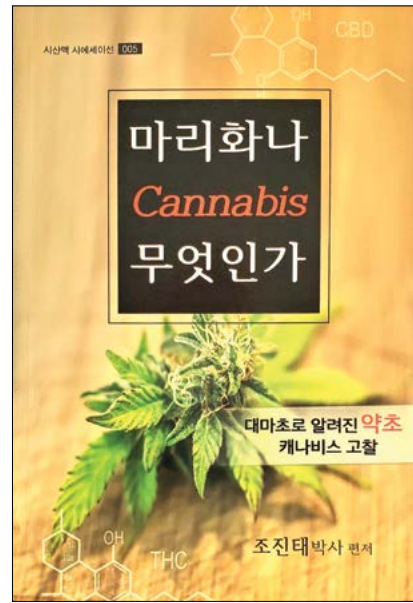
동문 신간 소개

조진태 (문리 57) 동문, 『마리화나 Cannabis 무엇인가』 출간



조진태 (문리 57)

【자료 제공: 조진태 동문】 달라스 한인 문화재단(DKCF)을 창설한 조진태(문리 57) 동문이 신간 저서인 『마리화나 Cannabis 무엇인가』를 펴냈다. 조 동문은 이 책 서문에서 집필 이유를 첫째, 대마초라고 불리는 마리화나(Cannabis) 식물에 대한 몰이해, 편견, 왜곡된 정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도록 하는 것 둘째, 과학적, 의학적으로 깊이 있게 소개해 관련 전문인들이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는 입문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동문은 1961년 모교 문리대 동물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UT Dallas에서



환경과학 박사학위를 취득, 스미소니언 해양자료센터와 Texas Instrument 생태연구부에서 생물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책 관련 문의: 달라스한인문화재단(T: 972-241-2411, M: 469-767-9798, www.jayzo.info)

김강수 (문리 59) 동문,

『창세기와 빅뱅 우주론이 만날 때: 반목할까? 화목할까?』 출간



김강수 (문리 59)

【자료 제공: 김강수 동문】 남가주에 거주하는 김강수(문리 59) 동문이 신간 저서인 『창세기와 빅뱅 우주론이 만날 때: 반목할까? 화목할까?』를 펴냈다. 김 동문은 이 책에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계속된 성경과 과학의 충돌, 즉 '창세기와 '빅뱅 우주론'이 꼭 지금까지와 같이 서로 반목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간다. 우리가 현재 읽는 창세기가 그와 같이 쓰이게 된 실제적 배경을 상세하게 알아보는 것과 동시에 종교와 과학의 특유성과 차이점 그리고 그것들의 관련성을 살펴봄에 창세기와 빅뱅 우



주론을 차근차근 들여다본다. 김 동문은 모교 문리대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물리학 박사, 남가주대학 전기공학 석사, 동대학 연구교수, 보잉회사 책임 연구원으로 복무했다. 책 정보: http://aladinusa.com/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윤정옥 (약대 50), 뉴욕지역 동창회 제19대 회장 역임, 뉴욕지역 골든 클럽 창설
▲ 이중희 (공대 55), 남가주, LA카운티 환경청에서 R&D 담당 엔지니어로 근무
▲ 이세영님 <뉴욕지역 골든 클럽 명예회장 이준행(공대 48) 동문 부인>

강호석 (상대 81) 동문 '하우스콘서트'

손영아 (음대 83) 동문 기획, 100여명 참석



강호석 (상대 81) 동문 집



하피스트 윤희진



피아니스트 장성

【기사: 손영아 (음대 83)】 지난 8월 17일 손영아 (음대 83) 동문이 기획한 하우스콘서트가 여바인 강호석 (상대 81) 동문 집에서 1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하피스트 윤희진이 헨델의 Harp Concerto in B flat Major Op. 4 No. 6 HWV 294 First Movement, 알폰스 하셀만의 Chanson de Mai Op. 40 M. Grandjany의 Fantasy on a Theme of Josef Haydn Op. 31, 가브리엘 포레의 'Impromptu' for Harp in D flat Major Op. 86을 연주했고

피아니스트 장성이 슈베르트의 3 Klavierstucke D. 946와 쇼팽의 12 Etudes OP. 10를 연주했다.

하트랜드지부 동창회 초대 글

2019년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어 여름 더위도 주춤하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대 하트랜드 동창회 선후배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오는 9월 14일 (토)에 개최되는 우리의 정기 총회에 많은선후배님들께서 참석해 주시라라고 간절히 믿는 마음으로 초대 글 보내드립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가을 총회에서 반갑게 만나서 친교도 나누고 미국생활의 이모저모 등 여러 생활 이야기와 전문지식의공유등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우기 큰 자량거리의 하나로 지난 20여년 동안 70 여명의우수한 학생들에게 서울대 동창회의 장학금을 수여해 온점은 우리 모두의 큰 자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창회 밤 행사 중의 하이라이트인 주제 강연은 서울대 동창회원으로서의 진리 추구와 견문을 넓혀주는 가교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Big Data Analytics and Its Application in Research, Education and Commerce" 라는 주제로 동문으로서KSU에 계산 권준희교수께서 주제 강연을 해주실 예정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전에는 골프를 좋아하시는 동문들께서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오후 여흥 시간에는 재미있는 게임으로 선후배간에 격차없이 함께 웃고 즐기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만사 제쳐놓고시고 가족 동반으로 함께 오셔서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심히 수고하는여러 임원들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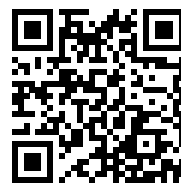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문의 밤 날짜 및 시간 : 2019년 9월 14일(토요일) 오후 5:30 - 10:00
장소: Sheraton Hotel, 6100 College Blvd., Overland Park, KS 66211 (913-234-2100)

하트랜드지부 동창회 회장 오명순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서치원 (공대 69) 동문 '하우스콘서트'

김원선, 윤희진, 김유은, 제갈소망 님 연주



첼로 김원선



연주자들

조로 되어 있고, 다시 느린 앞 부분은 돌로 나뉘어 다른 분위기를 전해주려 한다. 제1부는 울분과 정열의 화려한 도입부, 제2부에서는 집시들의 애환과 자유로움이 더욱 고조된다. 활기찬 빠른 템포의 제3부로 연결되고 이 열광적인 춤곡은 그들의 자유분방함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김유은의 연주는 매우 열정적이어서 관객들은 황홀경에 빠진 듯...

【기사: 홍선례 문화국장】

태양 빛이 뜨거웠던 8월에, LA Calabasas에 위치한 서치원(제37대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공대 69)회장 댁에서 열린 홈콘서트는 100여명의 동문과 친지들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박상길(제13대, 농대 58), 노명호(31대, 공대 61), 김지영(제33대, 사대 69), 제영혜(제34대, 가정대 71), 김상찬(제38대, 문리대 65), 박혜옥(제40대, 간호대 69), 김병연(제41대, 공대 68) 전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그리고 현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한귀희(미대 68), 차기회장 민일기(약대 69) 등이 참석하였다.



라철삼, 노명호, 김병연, 박상길, 홍성선, Mrs. 민일기, 민일기, Mrs. 라철삼

Cello 김원선 (음대 04)의 N. Paganini 작곡 Variations on a theme from Moses in Egypt. 파가니니는 루시니의 오페라에서 그 주제를 빌려와 몇 곡의 변주곡을 만들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작품이 '모세'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다. 이것은 오페라 '이집트의 모세(1818년)' 중에서 주제를 취한 것이다.

Harp 윤희진 (음대 99)의 Gabriel Faure의 Impromptu for Harp in Db Major Op.86. 특이한 리듬과 줄을 튕기고 음이 울리는 사이에 페달을 밟아 반음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순간이 마치 글리산도와 같이 미끄러지는 듯한 효과를 내는 '페달 슬라이딩'이라 불리는 기법 등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곡이다.

김유은 (음대 07)의 Violin Solo, Pablo de Sarasate의 Zigeunerweisen op.20. 사라사테는 그의 작품 대부분에 조국 스페인의 색채를 풍부하게 담았다. 그 중에서도 '지고이네르바이젠'은 그가 헝가리를 여행했을 때, 그 지방 집시들의 민요 몇 개를 소재로 작곡하였다. 이 곡은 전통적인 집시 음악들과 같이 느린 부분에 이어 빠른 템포의 구

제갈소망 (음대 02)의 Piano Solo, F. Chopin 작곡 Piano Solo Ballade No. 1 in G minor. 발라드는 쇼팽의 가장 대중적인 피아노 작품이다. 본래 성악곡에 한정되어 있던 Ballade를 쇼팽이 피아노의 영역으로 가져와 장르화 시켰다. 이 곡은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이다. 도입부부터 충격적이며 조성을 예상할 수 없다. 모호한 선율이 등장한 후 우울하고 어두운 제1주제가 등장, 제2주제는 화려하고 열정적이다. 점점 템포가 빨라지며 다이내믹도 커진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제갈소망의 박력있는 연주는 시원한 밤바다의 파도를 보는 느낌이었다.

마지막 곡은 F. Mendelssohn의 Piano Trio No. 1 in D Minor Op. 49. 1악장 Molto Allegro agitato. Violin 김유은, Cello 김원선, Piano 제갈소망의 Piano Trio였고, 관객들은 매 곡이 끝날 때마다 환호하며 앵콜 박수를 보냈다. 연주자들이 빛어 내는 아름다운 선율은 칼라바사스의 온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박혜옥, 유혜연, 서치원, 제영혜, 백정현, 류정순, 김홍묵, 김동근

소음악회가 끝나고 노명호 회장의 미주동창회 차기회장 당선을 축하하는 연주가 있었다. 피아노 트리오로 Congratulations을 재즈풍으로 연주할 때, 모두 박수 치며 춤을 추는 등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 정원에서 저녁식사 시간. 정원의 야자수가 하와이를 연상케 했고, 작은 정자는 한국의 한적한 시골의 정취를 느끼게 했다. 물이 흐르는 연못가에서 동문들은 와인과 더불어 저녁식사, 그리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서울공대 남가주동창회 및 음악 동호인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 소음악회는 필자가 몇 년 전부터 계획했던 것으로, 이를 계기로 오랜



변만식 (사대 49)

민들레 꽃 (The Dandelion)

조병화 (趙炳華, 1921-2003) 영문번역 변만식

요란하지 않아서 좋다. 화려하지 않아서 마음에 놓인다. 평범해서 정이 간다. 평범하고 요란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서 평안하다

민들레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씨가 머무는 곳에서 강하게 강인하게 피어난다

피어나서 요란하지 않아서 좋다. 화려하지 않아서 좋다. 수줍어하며 수줍어하며 나를 안아 주어 편안하다

Unadorned as you are Comfortable with none of the brilliant Attraction of your plainness As yet, you are of commonplace Neither blasted nor boasting at ease

Dandelion, you are what you are Wherever you have flown in to settle You sprout up valiantly and vigorously

In full bloom You are still unadorned The least of the splendor Abashed and ashamed of your self Thou embraces me fondly

일제와 조국 해방의 전환기를 살아온 조병화는 그 누구보다도 엘리트의 길을 걸은 시인이요, 교육자요 스포츠맨(럭비)이었다. 안성이 고향인 그는 경성사범(사범대학, 전 산)을 거쳐 동경 고등사범을 수료(8.15 해방으로)한 물리와 수학을 전공한 과학자이기도 하다. 해방후 서울고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경희대학교와 인하대학에서 각각 문과 대학장과 교육대학원장을 역임 했다. 한국 문인협회 이사장직을 맡기도한 그는 '버리고 싶은 유산'으로 등단하였다. 땀뻑한 그는 늘 검은 베레모를 비스듬이 쓰고 입에는 시가 파이프를 물고 사색에 잠기던 멋쟁이 시인 이기도했다. 해설 변만식

제3회 (2019-2020 학년도) 장학생 시상식 개최 Edward and In-Aie Kang Foundation



강에드 (사대 60)



【기사: 재단 보도 자료】

뉴욕지역 동창회 제32대 회장을 역임한 에드워드강 (사대 60) 동문이 설립한 Edward and In-Aie Kang Foundation에서 지난 8월 17일 재단에서 선발된 총 11명의 장학생에게 총 5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인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 에드워드.인애 강 재단재단은 매년 8월에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세번째 행사를 진행했다.

장학생 선발 및 응모 요강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edwardkangfoundation.org) 참조.

숙원이던 음대 연주자 지원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바란다. 음대회장 시, 김동석 회장님 댁에서 열렸던 홈콘서트 이후 첫 기획이다.

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몇몇 동문들에게서, 연주 수준이 지금까지 본 음악회 중 최고라는 찬사를 들었다. 장소와 음식을 제공하신 서치원 회장님 부부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앞으로 매년 홈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수익금은 연주자 기금 외에 공대동창





천양곡 (의대 )

### 그는 누구일까?

한주간의 내 일 뒀을 끝내고 뒤돌 댕에 얄아 찻잔을 기우리고 있다. 힘차고 우렁차지만 어쩐지 애달고 구슬픈 찌르라미 울음 소리. 아니, 대를 이으려는 책임감에 짝을 찾는 수컷 매미들의 합창소리가 공을 연듯 물에 빠뜨린 골퍼의 녹자 욱설과 섞여 8 월 중순 바람에 훌 훌 날아 온다. 문득 지나간 환자들의 이야기가 불어 오는 바람을 따라 오는지 떠오르기 시작한다. 세월이 지나 이제는 측두엽 어딘가에 묻혀 있어야 되는대 바람과 함께 불쑥 튀어나오는걸 보니 해마와 측두엽 어느 중간 지점에서 헤매고 있던 모양이다. 보통 그런 기억들은 감정요소가 강하게 붙어 있어 기억의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지 못하다가 강한 감정이 몰려오면 합체되어(incorporate) 의식 밖으로 기어 나오기 마련이다.

“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따금 환자한테 듣는 질문이다. 자신의 삶이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것이다. 그 사람 중에는 부모나 배우자, 친구, 친지도 있다. 거친 풍진세상 속에 버티고 살아가며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는 방법의 하나로 타인을 비난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 정신과적으로 부정(Denial), 투사(Projection), 합리화가 뒤섞인 복잡한 방어기전의 사용이며, 일반적으로는 의심, 불만, 오만에 가득차있는 이기심의 표상으로 표현된다. 이런 사람 대부분은 자아성찰, 자아발견, 감정조율에 문제가 많아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소외감과 외로움에 묻혀 자기만의 공간에서 쓸쓸이 살아가기 마련이다. 또한 그런 사람은 물어보는 사람에 대한 애증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그 사람과 다르다는 심리 상태를 은근히 내 비치는 경향도 있다.

환자가 찾아오면 내과의사는 먼저 혈압, 맥박, 온도를 체크한 후 식생활과 운동여부에 대해 묻는다. 반면 정신과 의사는 환자의 얼굴 표정을 살핀 후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관찰한다. 이것은 정신과 의사들이 교육과 경험을 통해 익힌 습관이다, 20세기 중엽까지도 진짜 정신과 의사가 되려면 이름난 정신과 의사한테 자신이 누구 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몇 년동안의 자기정신분석(Self Psychoanalysis)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득한 결론은 아무리 고명한 정신분석 정신과 의사라도 일반 사람이나 환자의 내면을 꿰뚫어보지 못한 거 불가능하다는 깨달음이었다. 물 얼 길 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은 한치도 알수 없다는 속담이 맞는 말이다.

몇해 전 독립기념일 주간에 등이 꾸부정한 노인 남자가 오피스로 찾아왔다. 나이 들은 아날로그 세대의 방문은 이제 매우 드물었기에 우선 반가움이 앞섰다. 환자는 머리가 거의 순백인 나를 보더니 마음이 놓였는지 언제 어디서 미국으로 왔느냐고 물었다. 거의 반세기 전 한국서 건너 왔다고 하니 반색

을 하며 자기도 한국전쟁에서 싸웠던 군인이라 했다. 환자기록관에 적힌 출생연도를 들쳐보니 당시에 도저히 군인이 될 수 없는 나이였다.

그러나 일단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다음 찾아온 이유를 물었다. “여기 저기 아파요, 소화도 안되고, 잠도 잘 들지 못하고 등도 많이 아파요.” 그렇다고 큰 병에 걸렸다는 생각은 없어요.” 방금 전 일상적 대화를 할 때는 명랑하고 활기가 있었는데 증세 들을 말 할 때는 병

### "때때로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는 방법의

하나로 타인을 비난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

정신과적으로 부정(Denial), 투사(Projection),

합리화가 뒤섞인 복잡한 방어기전의 사용이며,

일반적으로는 의심, 불만, 오만에 가득차있는

이기심의 표상으로 표현된다."

든 노인의 모습이었다. “내과 선생님은 뭐라 하는데요?” 노인은 옆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마 정신과 의사가 도와줄 수 있을거라고 했어요.” 곧이어 내가 물어 보기도 전에 눈치챈는지 “아내와 자식들이 모두 잘해주는데 왜 병이 났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번에 걸친 내과 의사의 진찰, 많은 검사 소견에 별 이상이 없는데도 계속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면 정신과에서는 신체형 장애에 의심한다. 환자가 신체질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다. 심적 갈등, 불만, 분노, 스트레스가 발병 원인으로 대부분의 경우 우울, 불안을 동반할 때가 흔하며 대표적 신체형 장애 질환들은 다음과 같다.

갑자기 팔 다리가 마비되고, 말도 잘 못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아 흐리흐리 하고, 귀가 잘 들리지도 않는 등 신경 감각과 신경 운동 기능의 저하를 나타내는 전환 장애(Conversion Disorder, 예전에는 히스테리아라 부름), 사소

한 신체 증상들이 빈번히 계속되면 무수 큰 병이 걸렸다고 걱정 고민하는 건강 염려증(Hypochondriasis), 정상적 외모의 소유자가 신체에 조그만 흠이 발견되거나 상처가 생기면 세상이 무너진 듯 자신의 몸이 달라지고 추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신체이형장애(Body Dysmorphic Disorder), 그리고 가장성장애(Factitious Disorder 예전에는 뽀하우젠 증)와 괴병(Malingering)을 들 수 있다. 가장성 장애와 괴병은 자신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증상을 만들어 내지만 자신이 병이 없음을 억히 알고 있다. 괴병은 금전적 보상을 원하거나 형벌을 피하고 어떤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확실하다. 가장성 장애는 단지 증상을 제조하여 환자의 역할을 함으로서 타인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자하는 심리적 보상의 동기를 보인다. 나머지 3가지 병은 고의적으로 증상을 만들어 내지 않고 정말로 자신이 아픈 사람으로 믿는 질환이다.

노인은 어렸을 때 부모와 행복한 시간을 가져 보지 못했다. 가족부양을 위해 긴 시간을 일해야 했던 아버지는 집에 오면 맥주 몇 병

은 무의식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꿈틀거리기 때문이다.

인류가 살아온 문화와 삶의 발자취가 역사라면 정신분석은 한 개인의 삶에 대한 발자취의 추구이다. 치유자는 환자의 어려웠적 부모와의 관계를 포함한 유년기의 성장 과정과 보육 과정을 알아 보는게 중요하다. 물론 자신도 잘 모르는데 타인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치유자는 항상 상상력, 추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소설가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노인은 아마 폐렴에 걸린 것을 자신이 약한 남자가 되었다는 슬픔, 부정, 분노, 회한 등 무의식 속에 가둬 놓았을 것이다. 이제 권위의 상징인 정신과 의사를 만나자 어렸을 적 아버지 영상이 떠올라 자신이 힘센 남자라는 무의식 소망을 과시하기 위해 한국전쟁 군인이었다는 거짓말로 둔갑하여 의식 밖으로 밀어 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심리적 기전을 정신과에서는 전이(Transference)라 부른다.

생물학적 정신과에서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도파민의 역할이 중요하듯 정신 분석 정신과에서는 저항(Resistance)과 더불어 전이가 정신 분석 과정을 이해하는 바탕을 이룬다. 전이는 어린시절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였던 행동과 감정이 정신분석 치료 동안 분석가나 치유자와의 관계에서 다시 보여주는 심리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전이를 통해 환자의 과거를 추출할 수 있는 것이다.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도 일반 사람들처럼 거짓말, 거짓 행위, 거짓 증상을 호소하며 살아 가고 있다. 반 인격적, 자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나 환자는 더 거짓 언행을 일삼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과 환자들을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꽤 있다. 120여년 전 프로이트가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하며 정신 분석학 이론의 초석을 세웠고, 지구촌의 수 많은 소설가, 시인들이 그들을 창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작년에 지구촌을 떠난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의 둘째 부인은 오랫동안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가련한 남편한테 뽀하우젠증도 같이 가진 것처럼 속여 그를 돌보고 있는 자신의 존재감과 세상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려 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최근에는 약육강식의 사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과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의 생존유전자를 찾기위해 진화생물 학자들이 그들을 소재로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가 누굴까란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남을 흉보거나, 욱하거나, 비방하는 일은 삼가게 좋다. 나 자신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을 단지 곁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지만 실제 삶의 여정 속에서 실행하기는 힘들다. 생리적으로 대뇌 깊숙한 곳에 있는 변연계(Limbic System)의 직관적 감성이 아마 뒤쪽 전두엽의 객관적 이성에 앞서는 이유다. 노인 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을 때 노인에 대한 나의 신뢰도가 잠시 떨어진 경우도 같은 맥락일거다.

남을 자신의 잣대로 재보는 습관은 매일 매일 서서히 노력하면 절반 정도는 고칠 수 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감성에 지배당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부부, 부모, 자식, 친척 등 인간관계에서 모나지 않는 사람으로 불린다. 겸하여 생의 마지막 눈감을 적에 후회를 덜하는 이익도 따르는 것이다.



김인수 (사대 55)

### 영원한 해방 기념일

### 815의 감격

광복절의 노래

훤다시 만져보자 바다물도 춤을 춘다. 뜨거운 피 영킨 자취니 기어이 보시래던 어른님 햇님 꿈엔들 잊을건가 지난날을 잊을건가 길이길이 지키고 길이길이 지키고

오늘 74주년 해방기념 815 광복절의 감격은 한민족 모두에게 가슴에 사무치고 골수에 사무치는 기억과 희망의 날로써 감격이 아닐 수 없다. 온 민족이 긴세월 36년동안 함께 겪어야 했던 그 숭한 많은 시련의 날들 무엇보다도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눈물과 피로 겪어낸 투쟁과 고난의 삶들이 광복을 위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꿈엔들 잊을건가” “지난날을 잊을 건가” 돌이켜 회고하건대, 74년전 필자는 초등학교 소년으로 왜정치하 감정이 시절 잔악한 일본 사람들의 만행을 잊을 수 없다.

###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눈물과 피로 겪어낸

투쟁과 고난의 삶들이 광복을 위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날을 잊을 건가' "

오늘 모든 한민족이 한마음으로 광복절과 선열들의 그 정신을 길이길이 지키고 이어나갈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는 일일 것이다. 다만 극소수의 일본 사람 앞재비 친일파들을 제외한 한 단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창세이후,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던 민족은 두말할 것 없이 정복자에게 침략을 당하며 피정복자와 피지배자의 신세로 살아야 했던 민족들이다. (이스라엘, 한국, 인도 등) 그 민족들에게는 그같은 운명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날보다 더 감격스러운 날은 없었을 것이다.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피정복자와 피지배자의 운명을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같이 그날을 위해 힘겨운 투쟁의 역사를 이어가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민족 해방을 투쟁으로 모든 피압박 민족이 투쟁끝에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감격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21세기 현재에도 이 지구상에 민족의 자주주권을 위해 피눈물나는 투쟁을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민족의 해방을 달성하지 못한채 좌절의 한을 씹고 있는 민족들이 있다.

우리 한민족은 대항해 20세기 초반에 국권을 상실한지 36년만에 해방을 맞아 그 한땅

은 생활에서 멍애를 벗었다. 필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일본말을 못한다고 매일 책상위에 올라 서서 칠판 선생님에게 회초리로 때 맞던 일, 일본 선생님에게 반항하던 일, 매일 아침 조회시간에 원수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일본천황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신사 참배와 수천년을 이어온 우리나라 말과 가기의 성(성)씨까지 빼앗긴 창씨개명의 조선 민족 말살 정책과 일본의 침략전쟁(일명 태평양 전쟁)을 위하여 병사 위안부, 강제징용 노무자, 남양군도 일본군 위안부(소녀들), 가미가제 전투기 조종사 청소년의 강제 납치로 자폭시킴, 쌀, 인삼, 금 등 착취 등 끝까지 대로 피영킨 자취를 어찌 잊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태평양 전쟁 말기 각종 명목의 공출로 식량, 농그릇(총알 제조), 한삼 덩굴(군복 제조), 소나무 뿌리(비행기 연료) 수거 등 최후 발악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곳에 소형 원자 폭탄의 투하로 무조건 항복, 일



오(조)봉완 (법대 53)

### 위안부

[2014년 9월 (번역/교정)]

사람들은 나를 위안부라 부른다. 위안은커녕 고통뿐, 부인이 아니라, 소녀. 아플때 나를 원 했고, 지금은 아무도 나를 찾지않는다.

수백달 후에 나를 불러다 찬양한다. 비단옷 입고, 잔치 음식 차려놓고, 찬사 하고 상패 준다. 그 옛날, 귀국 당시에, 환영하는 말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됐을텐데

이제, 소녀도 아니고, 부인도 아닌 노인 할머니. 위안대신 마음과 몸에 고통과 괴로움뿐. 내가 죽으면 그들은 나를 무엇이라 불릴 것인가?

[2019년 2월 1일, 사후 4일 후]

예, 나는 김복동이에요.

판란 많은 만 92년의 일생을 이제 떠났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무엇이라 불렀던 상관 없습니다. 여권 운동가? 인권 운동가? 정의를 쫓는 사람? 다 좋소이다.

하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속히 일본정부를 설득 시켜 정식 사과와 배상을 받아

우리의 원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 하도록 해 주시요. 나의 소원이었으이다.

멀리서 내가 지켜 보리다.

Dr. Bonnie Oh  
Distinguished Professor of Korean Studies (Ret.)  
Georgetown University

일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해답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창조와 민족해방의 기념일을 지켜나가는 신앙정신 때문이다. 이로써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대인을 지켰다는 속담이 생겼다. 우리 조국은 양적으로 많은 교회와 초대형 교회가 있지만, 많은 교인은 하나님을 질적으로 의지하고 믿지않고 대의 명분보다 실리(실리)를 목적으로 전시효과용으로 상입화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것과 비교가 됨을 본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기념일인 안식일은 영원한 이스라엘 민족의 기념일로 신바빌로니

아의 포로생활 70년과 유랑민족으로 세계에 흩어져 살아야 했던 2000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세계창조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을 잊지않고 기억하여 지켜 숭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끝내 고유한 민족성과 전통을 가진 민족으로서 이 지구상에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원컨대 해외에 사는 우리 한민족도 조국의 고유한 전통과 민족성, 정체성을 가지고 적어도 개천절(10월 3일), 815광복절, 3.1절, 6.25 한국전쟁 등 잊어서는 안되는 기념일을 기억하여 동포사회에 애국심, 국가관을 장려하고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어야 할 책임감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원택 (의대 65)

우리 어머니는 30년 전에 미국에 와서 3개월 사시고 “영 못살 나라”라고 정을 끊으셨다. 프랑스에서 온 한 친구도 3개월 살아보고 “순 상놈의 나라”라고 돌아가 버렸다. 그런데 나는 1975년 4월 28일부터 아직까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내가 미국에 대해 눈을 뜬 것은 초등학교 2~3학년 때이다. 경기도 파주에서 자란 나는 X-MAS 때 학교 위문단원으로 뽕혀 주위에 있는 미군 부대에 위문공연을 다녔는데 그때 얻어먹은 초콜릿이나 젤리 사탕은 어쩌면 그리 입안에서 살살 녹았는지.....

대학을 다니면서 주로 검정 염색한 미군복과 발목까지 자른 워커를 신고 다녔다. 그리고 미팅을 나갔으니 어느 여자가 눈길을 주었겠는가? 친구 작은아버지가 하던 출판대리점에 가서 ‘Times’나 ‘Newsweek’를 얻어가 들고 다녔더니 미국에 가고 싶어 안달하던 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대망의 디트로이트 공항에 도착했다.

나보다 1년 먼저 온 동기 하나가 신행 ‘몬테 칼로’를 몰고 와서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릴 때 ‘나도 1년만 있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타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때 그 기분을 유지하고 있다. “자유의 나라, 평등의 나라, 기회의 나라” ~ “America, Wonderful!”이라고 외치고 싶다.

많은 사람이 미국에 대해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세계에서 젤 부자대다가 젤 썬 나라가 미국이다. 그런데 막상 미국에 와서 살다 보면 ‘망할 놈의 나라!’ “못된 놈의 나라!” “똥 빨러 미국에 왔나!”라고 욕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보따리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내 주제가 “아직은 미국이 더 좋아!”이다.

여러 가지 오류도 있었지만, 나는 미국 생활에 잘 적응을 한 편이라고 자위하고 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것이 미국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어이다. 나는 아직도 영어를 못해서 분통이 터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더욱이 요즘은 기계를 통한 통화를 할 때 손을 쓰지 않고 말로 하는 voice command-음성명령이나 optional choice-취사선택을 할 때 내 발음을 못 알아듣고 엉뚱하게 대답을 한다. 이때 F로 시작하는 욕을 서너 번 해야 기계가 겨우 ‘미안합니다. 그러면 숫자를 눌러 주십시오.’ 한다. 망할 놈의 자식들 같으니라고 처음부터 그냥 숫자를 누르라고 하면 될 걸 가지고! 이는 완전히 이민자들을 기죽이려고 작정한 짓거리이다. 미국에서 영어를 못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이놈들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놔다. 광대한 국토와 다양한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한 언어를 쓰는 것이다. 일본의 한국어 말살 정책(고상하게는 내선일

## 미국이 어째서

체)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한 인간의 두뇌를 개조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언어를 바꾸는 일이다.

미 교육정책의 최 우선순위는 영어교육(외교적인 말로는 이중 언어교육)으로 이를 위해서는 암만 돈을 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민족들이 공공장소에서 지들끼리 자기 나라 말로 핏대를 세우면서 언쟁을 하는 것이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라, 한국에 이민 온 월남인들이 호지밍의 초상화를 들고 시청 앞에서 추모식을 한다거나 폼 팔러 온 인도인들이 파키스탄과의 축구시합에



서 이겼다고 광화문통으로 몰려온다면 그 누가 곱게 봐주겠는가. 2차 대전 때 한번 당했던 일본 이민자들은 절대 그런 짓 안 한다. ‘영어가 뭐길래’하고 남의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언어문제는 정면공격으로 돌파해 나갈 수밖에 없다. 헨리 키신저나 아놀드 슈워제 네거가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배짱으로 하다 보면 다 통하게 되어 있다.

두 번째로, 미국사람들은 법을 무서워한다. 한국에 가면 한가한 시골길에서 적색 신호등을 그냥 지나가는 것을 자주 본다. “차 없는데 뭐 어때!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실제 로 어떻게 될 리는 없겠으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그 정신자세가 문제이다. 그런 정신자세로 매사를 대하다 보면 언젠가는 꼭 실수하게 되어있고 시시한 법을 어겼을 때 맞보는 짜릿한 쾌감에 비해 몇백 배나 더 오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미국사람이라고 좋아서 법을 지키겠는가. 많은 미국인이 유럽에서 범법자로 거느 추방되고 다시피해한 한 언어를 쓰는 것이다. 그들은 서부개척을 하면서 ‘무법천지를 겪어

온 사람들이다.

미국사람들은 한마디로 피해의식이 뚝뚝 뚫린 사람들이다. 그동안 술한 집단충격 사건을 겪으면서도 개인의 무기 소지를 옹호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사법부의 권한이 큰 나라이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전체로나 인구비례로나 변호사가 많은 나라이다.

수년 전 이란의 전 대통령 (모하메드 카타미)이 유엔연설에서 미국을 비난하면서 지구상에 인구의 5% 이상을 감옥에 처넣거나 보호관찰 하는 나라가 미국 말고 어디 또 있겠는가. 하고 물은 적이 있다. 바퀴 말하면 미국 시민들이 법을 잘 안 지킨다는 말도 된다. 있으면 귀찮고 없으면 불안한 것이 법이다. 예전의 법은 약자 위에 군림하기 위해 만들어 졌는데 요즘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미 국민이 언제부터 약자를 보호해왔나. 노예제도의 중주국이 어디인가? 세계의 경찰을 내세우면서 약소민족을 지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미국의 신조는 약육강식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안전보장이

도 기회를 찾다 보면 반드시 남의 기회를 빼앗는 경우가 생겨나게 마련이다. 방법은 그 중에서 ‘재수 없어 걸린 몇몇을 처벌하는 수 밖에 없다.

세 번째, 미국은 돈이 움직이는 사회이다. 궁극적으로 ‘기회란 돈 벌 기회를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의 척도는 돈이다. 이민자의 대다수는 돈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한다.

인간의 원초적인 욕심 5가지(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정복욕) 중 첫 번째가 물욕이고 돈이 있으면 나머지 욕망도 채울 수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을 올라타려는 욕심을 정복욕 또는 권력이라고 한다. 권력 또한 다른 네 가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권력 지향성 사회가 판을 치고 있다.

미국에는 자국에서 권력투쟁에 패배한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 사람들이 미국 땅에 와서까지 권력투쟁을 하게 내버려 두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권력보다는 돈에 더 집착하게 하고 그 대신 대외적으로는 정복욕을 전환시켜 주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미국만큼 물량이 풍부한 나라가 없다. 미국만큼 상대적 물가가 싼 곳도 없다.

잘하는 정치란 다른 나라의 물산을 뺏아다가 자국민을 따듯이 입히고 배불리 먹이는 일이다. 많은 나라가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매도한다. 황제가 없는 나라를 왜 제국주의(imperialism)라고 하는가? 이는 황제가 있건 없건 ‘군사적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영토나 권력을 넓히려는 패권주의’를 말함이나 미국의 정책을 꼭 집어낸 적절한 표현이다. 대표적인 예는 월남전의 여파로 달라화 가치가 하락하자 닉슨이 1971년 8월 15일, 1944년부터 써오던 금본위제도를 철폐한 일이다. 제국주의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속보이게 남의 것을 약탈하면 그 원성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조라는 말을 쓴다. 병 주고 약 주자는 방법이다. 세계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또 평화봉사단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의 난민들한테 무조건 사회보장 연금을 주고 소수민족에 대한 특혜권을 부여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길러서 잡아먹자는 의도가 깔렸을 것이다. 미국에로의 ‘두뇌 유출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네 번째, 미국인을 지배하는 철학은 실용주의(pragmatism)이다. 이론이 밥 먹여 주나. 이빨만 까지 말고 실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다. 미국사람들은 탁상공론이나 허례허식에 지친 사람들이다. 실용주의를 대표하는 것이 자급(self-service)하는 것이나, 햄버거 문화, Costco 문화라고 하겠다. 싸고 편하면 그만이지 우아하고 거추장스러운 것 다 필요 없다는 것이다. 1979년 미국방문 후 ‘오목이’ 등소평은 미국의 실용주의 노선을 따라 ‘헝 고양이 검은 고양이 이론을 전개하여서 바야흐로 중국경제가 별 때같이 일어나고 있다.

실용주의가 항상 편한 것은 아니다. Costco 연쇄점에 가보면 특히 주말에는 사람에 걸



백 순 (법대 58)

는설위원

문제인 정부가 들어 선 이후 한국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경제지표가 증명해 주고 있다. 최근 통계지표에 의하면 한국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GDP의 성장률이 몇년전만 해도 3~4%이었던 것이 2.1%로 저성장률이고 있고 세계경제계의 여러 예측은 앞으로 2.0% 또는 그 밑으로 하향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년 실업률은 얼마전부터 10%이상을 뚫고 있고, 한국경제성장률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인 수출이 금년 8월 작년 12월 이후 계속 하락하여 7월에 비해 무려 -13.6%나 하락하였다는 비관적인 소식이다.

2019년 후반기를 지나면서 미국경제나 유럽연합경제를 위시해서 세계경제도 금년 아니면 2020년에 경제침체(2분기 연속 GDP의 마이너스 성장)를 맞이할지 모른다는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 현황이다. 더욱 한국경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주변 경제들의 최근 경제상황이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결과할 가능성을 들어내고 있다. 현재 반도체의 한국수출을 획일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일본의 경제제재와 미국-중국의 무역전쟁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산업생산에 적지 아니한 파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미국-중국의 무역전쟁은 미국이나 중국과의 대외 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 전망을 내다 본다.

저성장률과 높은 청년실업률과 계속적인 수출하락등등의 경제침체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과 중국등과의 불안정한 경제관계전망을 들어 내고 있는 한국 경제상황을 그 진면목을 진단하고 그에 대

려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이고 뭐든지 다양으로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쓸데없이 많이 사야 하는 병폐도 있고 ‘세일’물건이나 이왕 간 김에 다른 물건도 사다 보니 낭비가 이만저만 아니다. Costco 매장에 갔다 오면 왜 미국사람들의 비만이 늘어나는지 금방 알아볼 수가 있다.

엄밀히 따지면 미국사람들은 실용주의자라고 보다는 실리주의 또는 공리(功利)주의자들이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쾌락의 추구를 지상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에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행복(happiness)’이라고 대답한다.

공리란 공명(功名: fame)과 이익(利益: profit)이다. mini-max(최소투자-최대효과)로 Jackpot(대박)이 터지기를 바라고 Star-Wars(별들의 전쟁)를 통해 American-idd(우상)이 되기를 꿈꾼다. 그것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다섯 번째, 미국인은 대부분 개인적이다. 애

## 한국 자본주의의

### 문제점

한 적절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자본주의적 구조가 무엇인지 탐구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

자본주의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떠한 경영하느냐에 따라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 자본주의라 존재 특히 자본주의의 본산인 유럽과 미국에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발전하여 왔지만 3가지 구조의 자본주의가 지금도 세계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 3가지 구조의 자본주의는 ‘관리 자본주의(Managerial Capitalism)’와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그리고 ‘집단 자본주의(Collective Capitalism)’ 등을 지칭하고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유럽과 영미에 풍미했던 자본주의는 기업들의 제한적 책임만을 허용하는 ‘초기 자본주의(Early Capitalism)’로서 국민경제들의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소득 분배의 불평등(Distribution Inequality)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불평의 소리가 높여지는 현상을 가져왔다. 이에 큰 기업들이 정부와 노동조합과 협동하여 근로자의 직업과 이익을 보장해주는 관리 자본주의가 1950년대과 1960년대에 발전하기에 이른 것이다. 관리 자본주의는 근로자의 이익보장과 분배불평등의 해소라는 긍정적인 강점을 갖추고 있지만, 경제의 저성장(Slow Growth)과 경제의 정치화(Politicizing) 등등의 부정적인 약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1970년대에 미국경제를 위시하여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겪기에 이른다.

저성장률과 높은 청년실업률과 계속적인 수출하락등등의 경제침체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과 중국등과의 불안정한 경제관계전망을 들어 내고 있는 한국 경제상황을 그 진면목을 진단하고 그에 대

나 어른이나 “I dont care(관심 밖)”와 “mind your own business(참견 마)”가 입에 뱀 사람들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 않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인데 좋은 말로는 독립심(independence)이고 나쁜 말로는 자유라고 한다.

미국에 이민을 왜 왔는가? 신천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억압받고 쫓돌리고 공공 묵인 구태의연한 세상을 박차고 새 세상에서 마음껏 날개를 펴고 내 별 불리는 대로 한번 신나게 살아보자는 취지에서 미운 정 고운 정 다 끊고 온 사람들이다. 미국을 ‘깡패 나라’라고 한다. 신교도(protestant)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protestant는 원래 ‘반항아란 뜻이다. 반항아들은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다.

만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나, 나만을 위해서. 부모나 상사나 다 지들 재미 보려고, 지들 먹고 살려고 하는 짓거리인데 내가 그들 신세만 안 지면 됐지 그들에게 굶질

1980년대 이후 기업들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주주의 가치와 부에 투자를 집중시키는 주주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기에 이른다. 주주 자본주의는 주주의 가치와 부의 증진을 위하여 투자를 감행하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을 가져 오는 긍정적인 강점을 갖고 있지만, 기업들이 그 규모가 커지고 시장을 점유하는 힘이 강대해 지는 경제의 집중(Concentration)과 경제의 부도덕(Unethical Business)등등을 들어 내는 부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인지 20세기 후반과 21세기초반에 기업들이 기업소유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내 피고용자들과 공급자들과 고객들, 더 나아가 지역사회 등등을 고려하고 봉사하는 집단 자본주의가 탄생하기에 이른 것이다. 집단 자본주의는 경제의 모든 관련자들에게 경제발전의 혜택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긍정적인 강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2가지의 부정적인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책임성(Accountability)의 결핍이고 둘은 역동성(Dynamism)의 부족이다.

소수의 CEO들과 정치인들이 결탁하여 사회의 목표를 세움으로 책임성을 벗어나고, 또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음으로 역동성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지금 집단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부정적인 약점인 것이다.

현재 세계의 경제들은 그들이 선진경제이든 발전도상의 뜨는 경제이든 얼마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3구조의 자본주의, 즉 관리 자본주의와 주주 자본주의, 그리고 집단 자본주의 등등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민주당은 관리 자본주의를 제창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주주 자본주의와 집단 자본주의를 부르짖고 있으며, 유럽국가들과 BRIC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관리 자본주의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3구조의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를 점검하여 보면, 한국의 자본주의는 3구조의 자본주의가 갖추고 있는 긍정적인 강점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그 것보다는 부정적인 약점을 더

굶실할 필요가 무엇인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옆에 있는 사람은 거지적거리 뿐이다.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이 저기 저렇게 우뚝 솟아 있지않은가. 나는 남과 다르다. 내 유전자와 똑같은 자 있으면 한 번 나와 보라고 그래. 나를 떠나라와 똑같이 취급하지 마, 나는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라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 내 사명은 그 길을 개척하는 것이야. 개척 정신! 알아 몰라(?) 날 건드리지 마. 각, 다 싸줘야별장개!

우리 어머니는 여러 가지 불면 중에 말이 안 통해서 “영 못살 나라”라고 하셨고 프랑스 친구는 손가락으로 햄버거 먹고 손등으로 입을 속 뚫고 나오는 미국사람들을 보고 “순 쌍둥이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다.

2000년 전직 기자 강일선 씨가 미국의 세계 시장 점령방법에 대해서 쓴 (미국이 망해야 한국이 산다)는 그 뒤는 제목에 비해 ‘왜’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원래 제목 <강자의

많이 무뎠게 들어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경제의 현황과 한국경제정책의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한국의 관리 자본주의는 근로자를 위한 분배의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 정부의 소득주요 성장정책은 저성장률과 높은 청년실업률과 수출저조 등등을 결과하고 있는 현상이다. 한국 근로자의 노동총합가임율은 10.3%로 그리 높지는 아니하지만 한국의 노동조합은 큰 기업에 치중되어 있고 극히 전투적이며 비타협적임이 그 특징이다.

둘째 한국의 주주 자본주의는 재벌경제를 발전시키어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성장에 적지 아니한 공헌을 하여 왔지만, 재벌의 지나친 독점, 특히 재벌과 중소기업과의 불투명한 불경쟁관계가 한국의 중소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어서 어쩌면 각종 중간제품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경제에 적지 아니한 역효과를 가능케 하는 원인인지 모를 일이다. 더 나아가 한국 재벌들의 정치자금을 통한 정경유착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것이다.

셋째 한국의 집단 자본주의는 큰 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제창되고 있지만은 아직은 그 책임성에 있어서 매우 형식적이고,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경쟁과 다양화가 결핍되어 있어서 기업의 역동성을 크게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황이다. 기업의 경쟁과 다양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역동성은 미중무역분쟁으로 튼바구니에서 서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발전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현재 공존하고 있는 3구조의 자본주의 부정적인 약점들을 보완하고 긍정적인 강점들을 진작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한국경제가 첨단 선진경제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자본주의의 구조적 경제정책을 마련하여 할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논리)로 그냥 놔두었으면 좋을 뻔했다.

세계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반미데모나 미국을 나쁘게만 얘기하는 데는 약자의 반항심리가 많이 적용되는 듯하다. 미국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점 나쁜 점이 공존하지 않을 수 없고 ‘부국강병’은 모든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국가경영의 기본원리가 아닌가?

그동안 소련의 붕괴로 세계화(globalization), 세계화, 하면서 결국은 온 지구가 미국화(Americanization)가 되어가고 있다. Pax Americana (미국 안에서의 평화)란 미국에 의한 세계평화의 주도이다. 머지않아 중국에 의한 세계평화시대, Pax China(화화: 華華) 시대가 올 모양이나 지금까지 더 나아지리라는 보장 이 없다. 정들든 고양이만 말마따나 이왕 미국에 와서 사는 바에야 좋은 점만 따르면 되지 않겠는가? 아직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그럭저럭 살만한 나라’이다.





장소현 (미대 65)

## 내면을 응시하는 눈 빛 -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

세상이 참 험악하고 어지럽게 돌아간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내면을 응시하고, 사람답게 잘 살고 있는지 반성하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한 요즘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정치를 하는 인간들이 아주 가끔씩이라도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며, 아주 조금씩이라도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조금은 좋은 세상이 될 텐데...

사람들은 아침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고, 정성껏 화장을 한다. 하지만, 마음을 깨끗하게 닦는 일에는 게으르기 짝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일에 아예 관심이 없다. 지저분하게 더러워진 마음을 마주하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싫은 것이다. 아니 어쩌면 상처투성이 마음을 건드릴 용기가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훌륭한 예술가들은 늘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고 성찰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사람답게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다. 그런 내적 고민과 성찰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자서전, 회고록, 자화상 같은 작품들이다.

미술사를 빛낸 많은 화가들이 자화상을 남겼다. 여러 점의 다양한 자화상을 남긴 렘브란트, 반 고흐, 세잔느, 몽크, 캐테 콜비츠... 등이 대표적이다. 작품의 한 구석에 슬그머니 자기 얼굴을 그려 넣은 작가들도 적지 않다.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리는 것은, 자기 과시 욕망도 있지만, 근본적인 까닭은 자아성찰을 위한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며,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왜 그리는가?... 그래서 자화상은 미술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최고의 걸작 윤두서의 자화상

우리나라 화가 중에도 빼어난 자화상을 남긴 작가들이 적지 않다. 옛날 화가의 작품도 더러 있는데, 조선시대의 작품으로는 윤두서, 강세황의 자화상이 유명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것이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이다.

속중 36년인 1710년, 윤두서 45세 때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작품은 조선시대에 그려진 자화상 중 최고의 작품으로 꼽힌다. 국보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림의 크기는 20.5x38.5cm로 별로 크지 않지만, 매우 강렬하고 특이한 작품이다. 수염을 곤두세우고 형형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윤두서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 보는 이를

압도한다.

이 작품은 날카로운 관찰력과 뛰어난 묘사력, 극사실주의적인 세밀한 그림기법, 서양 화법을 도입한 묘사방법, 당시의 화풍에서는 보기 힘든 파격적인 그림의 구도 등으로 인해 혁신적인 그림으로 평가되어 왔다.

무수히 그려진 수염은 한 올 한 올 그 굵기와 길이가 모두 다르며, 심지어 코 속의 털까지



공재 윤두서 자화상

도 세밀하게 그렸다. 눈 주위에는 붉은 자국이 둥글게 둘러져 있는데 이것은 안경 자국이다. 그림은 안면의 붓질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어두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양감을 느끼게 한다. 가는 선으로 처리된 수염과, 예리하게 응시하듯 그려진 눈동자는 강한 힘과 생기를 느끼게 한다. 거칠 없는 외모와 정신 세계를 진솔하게 드러낸 작품으로 동양인의 자화상으로는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는 이 작품이 인류 미술사에서 동서양을 통틀어 가장 훌륭한 자화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그림은 얼굴 부위만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파격적인 구도 때문에 미완성작으로 여기지기도 했다. 윤두서의 생애를 알고 이 자화상을 보면, 내적 갈등과 고뇌가 한층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

공재 윤두서(尹斗穉, 1668-1715)는 대대로 해

남 지역의 대부호였던 해남 윤씨 가문의 종손으로 태어났다. 그의 증조부는 오우가(五友歌),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등을 지은 시조문학의 대가 고산 윤선도이고,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의 외증조 할아버지다.

26세 때 진사에 급제하였으나, 당파싸움이 극심하던 시기에 남인 출신이어서 관직에 나가지 못한 불운의 천재였다. 벼슬길을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하고, 뛰어난 문인화가로 평생을 학문과 예술에 정진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 46세에 고향인 해남으로 낙향했고, 48세에 짧은 생을 마쳤다. 낙향하기 전 해에 그린 그의 자화상은 세상을 향한 분노, 좌절과 포기, 안타까움 등의 내적 갈등과 울분을 섬뜩할 정도로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내부로 향해, 우수와 쓸쓸함으로 가득한 눈빛으로 변한다.

예술적 동지인 이하곤은 윤두서의 자화상을 이렇게 평했다. "6척도 안 되는 몸으로 사해



윤두서가 그린 심득경 초상

를 초월하려는 뜻이 있네. 긴 수염 길게 나부끼고 얼굴은 기름지고 붉으니 바라보는 자는 사냥꾼이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하지만, 저 진실로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는 기품은 돈독한 군자로서 부끄러움이 없구나."

### 조선의 3재 윤두서

화가 윤두서는 조선 후기의 화단의 선구자로 지목받으며, 현재 심사정, 겸재 정선와 함께 조선의 '3재'라 불린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전 대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털끝만큼도 그 참모습에 의심이 들지 않았을 때야 비로소 붓을 들었다"고 전한다. 그래서 윤두서의 그림을 보면 모두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치고 사실적임을 느낄 수 있다.

윤두서는 정물화, 말그림, 용그림 등 여러 분

야의 그림을 모두 잘 그렸지만 가장 빛을 발한 것은 인물화, 풍속화다. 그는 초상화를 매우 잘 그렸는데, <심득경 초상화>는 각별한 작품이다. 친구이자 육촌동생인 심득경이 38세에 죽은 뒤, 그의 이른 죽음을 슬퍼하며 그리움을 담아 그린 작품인데, 어쩌나 생생하게 잘 그렸는지, 그림을 본 심득경의 집안에서는 "살아온 것 같다"며 눈물바다를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남태웅(南泰熊)의 「청죽화사(靑竹畫史)」에 전해온다. 기억만으로 이처럼 생생하게 그렸다는 것은 그만큼 대상을 진심으로 깊게 알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일체감으로 가득한 우정과 사랑이 가슴을 울린다.

### 조선시대 초상화의 리얼리즘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일호불사 편시타인(一毫不可 便是他人)' 즉 "티끌 한 올이라도 다르면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엄격한 사실주의 정신을 철저히 지킨 작품들이다. 인물을 구미없이 있는 그대로 티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려는 사실적인 시각이다. 그래서 사팔눈, 곰보자국, 검버섯, 상처, 사마귀, 혹 같은 결점까지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그린다.

뿐만 아니라, 인물의 외형(外形) 묘사에만 그치지 않고 고매한 인격과 내면세계까지 표출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를 전신사조(傳神寫照)라고 한다. 형상을 통해 정신을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면이나 눈동자 묘사를 할 때에도 대상 인물의 인품을 나타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쪽 같은 선비정신과 이어지는 생각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의 초상화가 얼마나 사실적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일화가 있다. 피부과 전문의 이성낙 박사는 조선시대 초상화 519점을 분석한 결과 20여가지 피부병변을 발견했고, 이를 바탕으로 쓴 <조선시대 초상화에 나타난 피부 병변 연구>라는 논문으로 명지대에서 미술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권위 있는 국제적 학술지에도 실렸다.

이성낙 박사는 "조선 초상화를 분석한 결과 얼굴에서 병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그려졌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의 초상화는 한 기닥의 털, 한 올의 머리카락이라도 달리 그리면 안 된다는 초상화론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를 만나려고 노력해 봤는가?"

구미지 않은 자신과 만나고, 진짜 나의 모습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일...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멋지게 보일까 노심조사하며, 명품으로 휘감아 포장하고, 사진은 '뽀샵'으로 변장시키고, 얼굴 뜯어고 치기로 정신없는 현대인들이 시급하게 되찾아야 할 덕목이 아닐까.

자화상 그리기를 권한다. 사진으로 찍어서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도 좋다. 자화상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기성찰의 지름길이다.



최은관 (상대 64)

보통 사람들은 마사다(Masada)가 유대인 독립군이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용감하게 항전하다가 마지막에 1천 명이 자살한 곳이라고 알고 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신화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 1. 예루살렘의 포위

먼저 유대인의 독립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살펴 보자. 로마는 군대를 양성하고 그리스 (기원전 133년), 실루시드 왕국과 팔레스타인 (기원전 63년), 그리고 예집트를(30년) 정복하였다. 일일이 개인에게서 세금 걷는 것이 성가시므로, 로마는 정복한 각 지방 (province = provincia, 전에 정복된 곳)에 다스리는 총독을 임명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어느 지방이나 임명된 로마인 총독은 로마 정부에 물어야 할 세금보다 더 걷은 것은 자신의 지방에서 쓸 수 있었다.

로마는 또한 제국과 협조하는 유대인을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고, 유대인은 이러한 간섭을 분개하였다. 예수가 서기 30년에 돌아가시고 난 후, 서기 39년에 칼리굴라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신이라고 선언하고 로마 제국 전역에 어떤 성전이나 그의 조상(彫像)을 세울 것을 명했다. 오직 유대인만 이를 거부했고 칼리굴라는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으나 갑자기 그가 살해되어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서기 66년에 마지막 총독이었던 제시우스 플로루스(Gessius Florus)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17 달란트의 은(銀)을 탈취한 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 일차적으로, 이 소동은 예루살렘 성전이 많은 은을 모아 놓고 공익 사업이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이런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 폭동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은 집단마다 달랐다. 사두개인(saducees)은 온건파였고, 다만 플로루스 총독이 해임되기를 바랐다. 민족주의자였던 열심당원들(Zealots)은 독립을 주장하였고, 시카리파(sicarii)는 로마인뿐 아니라 친로마파 유대인도 서슴치 않고 살해하였다.

이 폭도는 처음에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소수의 로마인 수비대를 몰살했고, 뒤이어서 이웃 시리아의 총독 케스티우스 겔루스(Cestius Gallus)가 보낸 군대도 마찬가지로 무찔렀다. 이러한 초기의 승리는 폭도에게 어쩌면 자기들이 로마 군대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 일으켰고, 따라서 반란군의 수가 차츰 늘어났으나, 이것은 큰 오산이었다.

이 당시에 유대인 중에는 독립 전쟁을 일으킬 만한 통일된 지도층이 없었고, 폭도들이 자세한 전투 계획이 없이 전쟁을 일으켰으므로, 이것은 독립 전쟁이기보다 폭동으로 보아야 한다. 이 폭동이 큰 전쟁으로 확대되

## 마사다의 비극: 어디까지 신화(神話)이고 어디까지 사실인가?

어 많은 유대인이 죽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유대인의 호전성을 보고서, 예수는 유대인들이 조만간에 승산 없는 독립 전쟁을 일으킬 것을 예견한 듯하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정도로 성전이 파괴되리라 예수는 예언하였다.

독립군이 형성되자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로마 군대의 공격에 대비하여 각 지역을 강



마사다 모형

화가기 시작했고, 갈릴리에는 요세푸스(Josephus)를 독립군 지휘관으로 보냈다. 요세푸스는 로마를 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고, 로마 군대의 본을 따서 65,000명의 군대를 훈련시켰다.

유대인이 전투 태세를 갖추자 67년 봄에 로마의 황제 네로는 베스파시아인(Vespasianus) 장군을 혁명을 진압하라고 보냈고, 그의 아들 타이투스(Titus)가 곧 그와 합세하였다. 이들은 전투 경험이 많은 군인이었다. 6만 명이 되는 로마의 군대가 폭도의 세력이 가장 큰 갈릴리에 투입되었다.

47일 만에 조타파타(Jotapata) 요새가 함락되어 패하자 요세푸스는 항복했다. (타이투스 앞에 잡혀 오자 그는 타이투스가 후일에 황제가 되리라 예언하여 목숨을 건졌고, 나중

에는 1세기의 유대인 역사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이때 갈릴리 지방에서1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이 죽거나 노예로 끌려갔다고 한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의 투쟁을 전혀 듣지 않았다.

서기 68년에 네로 황제가 암살되었고, 베스파시아인 장군은 예루살렘 공격을 중단하고 새 황제의 명령을 기다렸다. 69년에 갈바(Galba), 오토(Otho)와 비텔리우스(Vitellius)가 차례로 황제가 되었으나, 곧 암살되거나 죽었고, 그 해 12월에 베스파시아인 황제가 되어 79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다.

갈릴리에서 패한 폭도 중에 기스칼라 요한(John of Gischala)은 안식일이니까 타이투스에게 기스칼라에 입성하지 말라고 부탁해 놓고서, 밤중에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 그리고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독재자가 되었다. 요한을 몰아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은 시몬 바 고리(Simon bar Giora)를 성에 들였다. 15,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시몬은 윗도시

자도 있었다고 한다. 죽은 자가 1백만을 넘었다고 한다. 서기 70년에 일어난 이 예루살렘 포위전은 온건한 다수가 소수의 과격파를 다스리지 못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마침내 서기 70년 8월 2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타이투스 장군은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남겨 두고 로마인의 신전으로 만들 생각이었으나, 어느 로마 군인이 던진 불막대로 인하여 불이 빨리 퍼져, 성전이 불에 탔고, 이 불은 예루살렘의 주거 지역까지 번졌다. 이렇게 되자, 타이투스는 군대에게 성전을 밀어버리라고 명을 내렸다. 그야 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 단지 서쪽에 지금은 통곡의 벽으로 알려진 기초 담만 남았다.

이렇게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일어난 유대인의 1차 독립전쟁은 서기 70년에 끝났다. 그러나 소수의 유대인 군대가 사막 지역의 마사다로 후퇴하여, 3년을 더 버티었다.

73년 4월에 로마의 장군 플라비우스 실바(Flavius Silva)가 마사다에 남아 있던 유대인의 잔당을 소탕하려고 요새를 동그렇게 둘러싼 돌벽까지 흠을 쌓아올렸는데, 로마 군대가 요새에 진입하기 전 날, 남아 있던 유대인 잔당은 몇 명을 제외하고, 전부 자살했다고 한다. (참고 서적: Richard Matthis, First Jewish-Roman War, December 1965 issue of Military History)

### 2. 마사다 비극의 진실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 대왕(Herod the Great)이 아버지 안티파터(Antipater)가 죽은 뒤에 이 마사다 요새를 점령하였다고 한다. 나크만(Nachman)은 20세기에 들어서서 정치적 목적으로 마사다 신화가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 사실을 기록하였다[주: 나크만의 "마사다 신화," Nachman ben Yehuda, The Masada Myth: Collective Memory and Mythmaking in Israel, 1995].

(1) 서기 66년에 시카리(sicarii) 일파는 주로 로마인과 유대인을 서슴치 않고 많이 죽였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고, 이들이 아마도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마사다를 점령했을 것이다.

(2)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뒤에 마사다를 점령하고 있던 사람들은 열심당이 아니라 시카리파였다. 이들은 독립 전쟁을 일으켰던 열심당보다도 과격한 집단이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들은 마사다 근처의 엔게디 (Ein Gedi)를 밤에 습격하고 남자들이 마을 바깥으로 쫓아냈으나 떠나지 못한 유대인 여자와 어린아이 700명을 학살하였다.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을 탈취하여 마사다로 가지고 갔다.

(3) 마사다의 포위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직후에 시작되지 않았다. 서기 73년에 로마의 플라비우스 실바 장군이 제10군단을 이끌고 마사다를 포위했다.

로마는 마사다에 남은 시카리 일파가 다시 독립 전쟁의 불씨가 될까 두려워 이들을 소탕하기로 작정했다.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걸렸고, 또한 실바는 마사다를 포위하기 전에 근처의 두 성, 헤로디움(Herodium)과





온기철 (의대 65)

###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선조, 이승만, 김일성의 도주행각

625사변이 일어나기 358년전 선조는 일본 군에게 쫓겨서 한양을 버리고 개성, 평양을 거쳐서 의주로 도망쳤다. 도망치는 동안 여러번 사신을 보내서 원병을 청했다. 일본군에게 잡힐까봐 명나라로 망명 할 생각까지 했다. 358년후인 1950년10월1일 박헌영은 김일성의 서신을 가지고 베이징으로 가서 모택통과 주을레에게 중공군을 보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김일성은 남포당 영수 박헌영의 말을 믿고 해방군이 남쪽으로 쳐들어 가면 빨치산이 합류하고 남한 민중이 봉기하여 단 23개월만에 조국 통일을 완수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낙동강 유역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 갔으나 부산을 중심으로 낙동강 건너편에 진을 친 미군과 국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서 김일성의 꿈은 완전히 좌절되었다. 미공군의 철도, 도로, 교량과 군사공장등에 대한 철저한 폭격은 북한군 보급에 극심한 차질을 주었다. 심지어 사상자를 대치할 보충병을 신속하게 보낼 수도 없었다. 9월 인천상륙작전으로 보급은 물론 퇴로까지 차단되었다. 더구나 박헌영이 장담했던 민중봉기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국민들의 반공의식은 투철하기만 했다.

928일 서울이 수복되고 10월1일 국군을 선봉으로 미군(유엔군)은 38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했다. 김일성은 줄행랑을 치기 시작했다. 이승만이 자신은 서울 빠져나오면서 한

강다리를 폭파하고, 서울시민에게는 국군이 서울을 방어할 터이니 안심하라고 방송한것과 같이 김일성은 평양을 탈출하여 생명을 부지하고 부하들에게는 영토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0월12일 그는 평양을 떠나서 평남 덕천산속에 은신했다. 곧 평북 동창군으로 이동했다. 10월18일 중공군 야전사령관 팽덕회가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 왔다.

19와 20일에 김일성과 팽덕회는 전쟁에 대한 방안을 논의 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미군과 유엔군의 적극적인 참전으로 자신이 만든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게 된 김일성은 소련에게 원병을 요청 했으나, 스탈린은 모 든것을 중국에 미루었다. 중국공산당은 소련의 도움으로 만들어 졌고 국민당과의 전쟁도 소련의 도움으로 이길수 있었다. 또한 100여년동안의 내란과 외침으로 피폐한 경제상태를 회복하는 데 소련의 도움이 절실했다. 소련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힘든 입장 이었다. 그러나 4년동안의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공표한지 겨우 일년이 지난 마당에 또 전쟁터로 군인들을 내몰기도 곤란한 상황 이었다. 당연히 파병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모택통과 팽덕회가 고집하여 파병이 결정되었다. 모택통은 김일성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입장이었다. 장개석과 싸우는 동안 김일성은 김책에게 3만

대군을 맡겨 팔로군과 함께 국민당군에 대항하여 싸우게 했다. 그리고 일본군에게서 노획한 무기를 보내주었고 군수물자도 원조했다.

중국은 만약에 북한이 미군에게 점령당하면 중국이 위협해지기 때문에 한국전에 개입한다고 천명했다. 이와같은 생각은 임진왜란 때나 한국전쟁 때나 다름이 없다. 일본은 조선에게 명을 질터이니 명으로 가는 길을 내놓으라고 하고 조선을 침략했다.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면 명이 위태로워질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명은 조선을 보호해야 했다. 북한이 미국과 중국이 직접충돌하는 것을 막는 완충작용을 하듯이 당시에는 조선이 일본과 명이 직접충돌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트루만은 한국전쟁 파병을 선언하면서 "남한은 일본방어에 중요한 지역"이라고 전쟁개입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대륙세력인 중국, 남한은 태평양 세력인 일본과 미국의 완충지역인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이 두세력의 원충지대로 완전한 균형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 미국, 일본이 통일을 구대어 부추길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통일은 우리민족만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고 우리힘으로 하는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1950년10월20일 김일성은 중공군 참전을 확인 했고 사실상 작전권이 김일성으로 부터 팽덕회에게 넘어간다. 공식적으로는 12월에 팽덕회가 완전히 장악 했다. 김일성은 10월25일 창성, 11월8일 고산진 산골로 옮겨다니며 은신 행각을 하게된다. 그는 압록강 유역을 따라 고산진-강계-만포를 오가며 부분적인 통치기능을 유지하고 작전을 지시했다. 북한내부의 배반자가 미군에게 김일성의 은신처를 암호로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옮겨 다녔다고 한다.

1592년12월25일, 김일성이 중공군에게 전 시작전권을 넘기기 358년전 일이다. 선조는 의주 용만관에서 명나라장수 이여송을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왕은 멀고 고난스러운 피난길에 지칠대로 지쳐 있었다. 나라의 존망과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마당에 상국 장군의 출현은 구세주와 같은 것이었다. 한양을 떠나면서 백성들의 안위는 나중에 없이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꼴은 이승만, 김일성과 대동소이했다. 거만하기 짝이 없는 이여송은 속국을 구하기위해서 왔다고 아뢰었다. 그리고 자신이 명군과 조선군을 지휘할 것을 선조에게 요구 했다.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도항상을 내주었다. 이같은 조선군 지휘권의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명과 일본의 전쟁이 되었다.

1950년6월27일 이승만은 한강을 무사히 건너면서 극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한국군 지휘권을 넘겨 주었다. 이렇게해서 한국전쟁은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되었다. 중국 사람들은 항미원조전쟁이라고 한다. 역사학자들은 한국전쟁을 대리전쟁(Proxy War)으로 인식한다. 한국전쟁은 무승부로 끝났다. 전쟁초기에는 인민군과 국군이 싸워서 인민군이 이겼고 미군(유엔군)과 국군이 북한군을 물리쳐서 청천강과 장진호까지 진격했으나, 중공군이 개입하여 미군과 국군이 퇴각하여 38선 부근에서 정전협정이 맺어졌다. 미군과 중공군의 싸움은 맥아더-워커 장군과 주을레-팽덕회의 한판이었으며, 주을레-팽덕회의 승리였다. 100여년 동안 서양 세력과 일본과의 싸움에서 당하기만 했던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전쟁이었다. 이전쟁으로 중국인들의 사기는 충천했으나,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서 국민들은 배를 굶주리고 오랜세월을 살아야 했다.

파 유대인이 몇 명 남아 있지 않았다는 설이 더 유력해 보인다. 포위되기 전에 남아 있던 사람이 더 많았을지 모르지만, 로마군 지휘하에 유대인 노예들이 공사하는 몇 달 동안, 잔당은 이들과 섞여, 날마다 담을 넘어서 도망치고 몇이 남지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실제로 공사하는 데 유대인이 동원되었으므로, 이들과 자연히 섞여 노동자인 척하고 어둑해질 때 도망갈 수 있었을 것이다.

(2) 마사다에서 28명의 유해가 발견되었고, 이 중에 더러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의 것도 있다고 한다. 아마도 마사다를 시카리파가 점령했을 때 잡혔던 로마인이었을 것이다.

(3) 실제로 마사다의 유적을 보면, 이 고지에서 1천 명은 커녕 1백 명도 먹여 살리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밥 동안 응집되는 이슬을 모으는 물웅덩이가 있지만, 이 물로는 거의 사막과 같은 이 지역에서, 목욕이나 요리는 커녕 몇십 명이 마실 물로 쓰기에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휘관이나 몇 사람이 쉴 곳은 이 산꼭대기에 있지만, 그렇게 좁은 곳에 피약벌에, 백 명만 모여 있어서 갑갑하여 싸움이 일어났을 것이다.

르 (Elazar ben Yair)였다. 마사다가 점령되기 바로 전날 저녁에 마사다의 방어벽이 불에 타버렸고 다음날에는 로마인들이 물밀처럼 밀어들어 온 것이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인의 대량 자살은 73년 4월 15일에 일어났다. 960명의 거주자들이 식량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불살랐다고 한다. 먼저 남자들이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다음에10명 중에 하나가 나머지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 다 죽고, 여인 2명과 아이 8명이 남았다고 한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이 광경을 직접 목도한 증인은 아니고, 간접으로 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적은 것이니, 신빙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죽은 사람의 수는 다음 이유로, 1백 명이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

(1) 포로가 된 유대인들이 마사다 꼭대기의 진영까지 독을 쌓는 공사를 하는데도 마사다 안에서 아무도 이들을 죽이려 하지 않았는데, 더러는 시카리파가 동료 유대인을 죽이기 싫어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전에 마사다에 침격하기 위하여 먹을 식량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계디에 가서 유대인, 그것도 여자도 어린이가 700명을 학살했던 이 시카리 일파가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이 설명보다, 이미 성안에 남아 있는 시카리

과했을 것이라 한다. 실제로 마사다에 남은 건물 유적을 보면, 1백 명이 거하기에도 어려웠을 듯하다.

(9) 요세푸스는 마사다가 포위되기까지, 로마인과 시카리파의 전투는 없었다고 기록한다. 실제로 시카리파는 로마인과 전투하기를 꺼려했고, 암살을 일삼았다. 저항이 있었다면, 로마인이 요새의 벽을 돌파하던 마지막 단계에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마사다에는 올라오는 로마 군인을 공격하기 위하여 마련한 돌, 추구 공보다 조금 적은 크기의 돌들이 수십 개 지금까지 남아 있을 뿐이다.

#### 3. 마사다에 몇 명이 남아 있었는가?

로마의 군단은 1세기에 보통 5,000명의 시민군대(가난한 보병)와 300명의 기병(말을 탄 부자 군인)으로 이루어졌고, 군인은 각자 다 고원에 이르기까지, 주위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114 미터에 달하는 독을 쌓았다. 서기 73년 봄에, 두세 달 만에 이 독을 쌓았다고 한다.

이 시카리파의 지휘관은 엘라자르 벤 야이

마카에루스(Machaeus)를 먼저 점령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다.

(4) 로마 군대의 마사다 포위는 3년 동안이 아니라, 서기 72-73년 겨울부터 봄까지 4개월이나 6개월이 걸렸다.

(5) 로마의 군대는 산 밑에서부터 마사다 꼭대기까지 빈 공간에 흙을 쌓은 것이 아니라 꼭대기까지 잇는 울퉁불퉁한 천연의 산마루에다 흙과 돌을 더 얹어 바위를 단 공성탑과 투석기가 접근할 수 있도록 산비탈을 원만한 직선으로 만들었다.

(6)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는 유대인의 저항이 극심했다. 헤로디움은 금방 함락되었으나 마카에루스가 포위되었을 때에도 유대인의 저항이 상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마사다가 포위되었을 때, 안에서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고 기록하였다.

(7) 독립 전쟁을 주도했던 시몬 바 고라 (Simon bar Giora)는 로마인에 항거하여 싸우다가 잡혀서 로마에 끌려가서 죽었으나, 시카리파는 마사다에서 사는 데 익숙하여, 거기서 나오기를 싫어했고 로마인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정신이 부족했다.

(8) 나크만에 따르면 마사다에 주둔하고 있던 시카리파 전투원은 250에서 350명에 불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news@snuua.org www.snuua.org

158-14 Northern Blvd., 2nd Fl. UL-2, Flushing, NY 11358 | T. 718-463-3131

참여, 협력, 영광

### 홈커밍데이 40주년 미주 동문 참여 일정

- 1) **10월 14일 (월):** 서울대 개교기념식, "특별강연 및 후배와의 대화 시간"
- 2) **10월 16~19일 (수/목/금/토):** 서해 및 남해 3박 4일 여행 (미주 동문 및 본국 동문 참여)
- 3) **10월 20일 (일):** 서울대 홈커밍데이 등반대회 및 서울대 총장실 방문
- 4) **10월 21일 (월):**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빌딩 방문 및 서울대 교내 투어

- ◆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회관**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Ho-Am Art Hall)
  - 주소: (151-05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동 239-1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 회관
  - T: 02-880-0300 | F: 02-885-0255 | mkim0131@msn.com | http://www.hoam.ac.kr
  - 예약 신청 바로가기: http://www.hoam.ac.kr/rooms/reservation.php
  - 연락처: 서울대 미주동창회 조직국장, 백옥자 818-395-1967 | okjapaik@gmail.com

미주동창회 회장 신응남

**서울대 홈커밍데이 여행 일정표 (서해 3박 4일, 2019년 10월 16~19일)**

\$529.00 + 항공료, 연락처: 백옥자 (Jace Lee) 818-395-1967

DATE	CITY	TRAFFIC	ITINERARY	MEALS
제1일 10/16 (수)	인천 서울	항공 전용차량	(06:00am) 제2여객터미널 인천국제공항 1층입국장 B출구 6번 출입문 앞(안내대스크) "US아주투어 피켓" (06:30am) 제1여객터미널 인천국제공항1층입국장 D와 E사이 10번 출구 앞(안내대스크) "US아주투어 피켓" (08:30am) 강남(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정문 앞) 출발 "US아주투어 피켓" 청주로 이동 대통령 전용 별장 청남대 중심 후 순창으로 이동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숲 강천산 근림공원 담양으로 이동 가장 키가 큰 식물이 담양이 있다고요? 담양 죽녹원 광주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호텔: 광주 홀리데이인 또는 동급 (TEL : 062-610-7000) (7월달과 8월은 목포 현대 또는 동급 호텔에서 투숙합니다.)	B: X L: 우렁쌈밥과 떡갈비
제2일 10/17 (목)	광주 순천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순천으로 이동 낙안읍성 조선시대의 읍성 대한민국의 사적 제302호 중식 후 2015년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으로 감동을 선사하며 클래스가 다른 꽃들의 향연 보성으로 이동 보성녹차밭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에서 최천면 사이에 걸쳐 있는 차 재배단지 중식 후 여수로 이동 오동도 (여수밤바다 야경) 190여종의 희귀수목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동백섬으로 유명하며 한려 해상 국립공원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순신대교가 보이는 객실에서 투숙 및 휴식 호텔: 광양 라희 호텔 또는 동급(TEL: 061-913-5000)	B: 호텔뷔페 L: 별교곡막 D: 갈치조림
보성				
여수				
광양				

제3일 10/18 (금)	광양 통영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통영의 나폴리 통영으로 이동  ▶ 선택관광: 통영 케이블카 (US\$ 20.00 p/p)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긴 1,975m의 케이블카로 정상에 오르면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경중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으며 세계 4대 해전에 해당하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다도해입니다. 한국 조선산업의 메카 거제도 이등 및 중식  ▶ 선택관광: 장사도 (US\$ 40.00 p/p) 푸른보석 위 남도의 작은 섬 장사도 동쪽에 몰들다 한려수도의 절경과 동백의 조화로 절정을 이루는 2011년 12월 문화 해상 공원의 탄생 기상으로 인해 장사도 불가지 한산도로 대체됩니다. 아주만의 특전 거제 바다를 바라보며 호텔식으로 석식 후 투숙 바다 위로 펼쳐진 산책길을 걸으며 거제의 밤바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호텔: 거제 데일리조트 또는 동급 (TEL: 1588-4888) 100% DELUXE FULL OCEAN VIEW 보장 거제 데일리조트 호텔	B: X L: 우렁쌈밥과 떡갈비
제4일 10/19 (토)	거제 김해 (부산)	거제대교	호텔 조식 후 거제 출발 거제대교 전망대에서 거제대교 조망 부산과 거제를 잇는 길이 8.2km의 다리로, 해상의 사장교와 해저의 침매터널(3.7km)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로 이동,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해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B: 호텔뷔페 L: X



담양 죽녹원



오동도 (여수밤바다 야경)



선택관광: 통영 케이블카



거제대교 전망대에서 거제대교 조망





### 미주동창회 회비와 후원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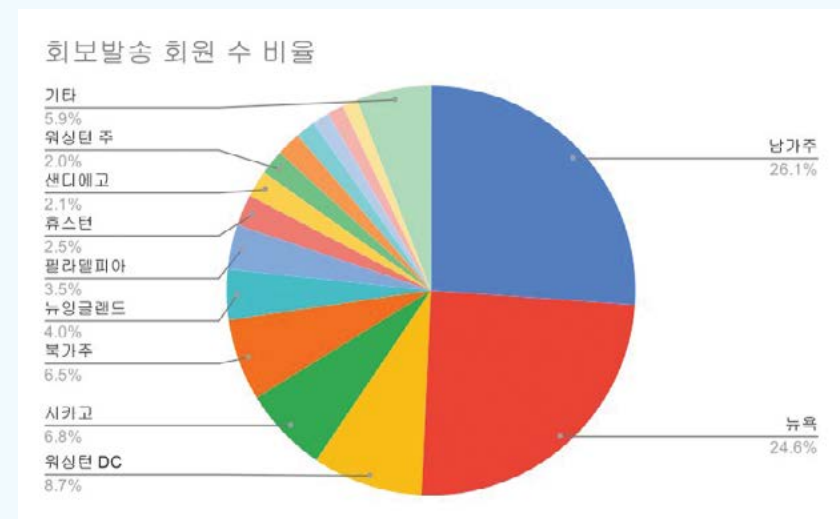
이창길 (자연 85), 사무총장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와 동창 회보는 동문님들의회비와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난 2년 동안,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회비를 내주시는 분들의 숫자를 뽑아 보았습니다. 각 지역 동창회별로 통계를 내는데 회보 발송 회원 숫자가 100명에 가까운 지역만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지역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전체적인 회비 현황을 보기 위한 목적이므로 혹시라도 빠진 지역 동창회의 동문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지역 동창회의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다시 한번 통계를 낼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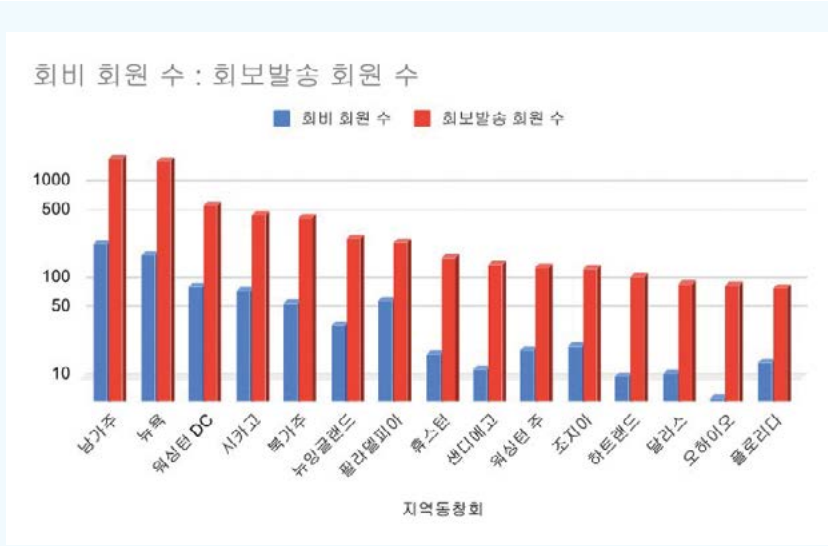
아래에 첨부한 표는 회비를 내신 분들과 회보 발송 회원 숫자를 비교한 것입니다. 회보 발송 회원 숫자는 2016년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각 지역의 회보 발송 회원 수 비율은 각 지역의 회보발송 회원 수를 전체 발송 회보 숫자 6851명으로 나눈 것입니다.

지역동창회	회비 회원 수	회보발송 회원 수	지역 동창회 회비 비율	회보발송 회원 수 비율
남가주	233	1789	13.02%	26.11%
뉴욕	180	1687	10.67%	24.62%
워싱턴 DC	86	598	14.38%	8.73%
시카고	78	464	16.81%	6.77%
북가주	57	442	12.90%	6.45%
뉴잉글랜드	34	272	12.50%	3.97%
필라델피아	61	242	25.21%	3.53%
휴스턴	17	169	10.06%	2.47%
샌디에고	12	145	8.28%	2.12%
워싱턴 주	19	135	14.07%	1.97%
조지아	21	131	16.03%	1.91%
하트랜드	10	109	9.17%	1.59%
달라스	11	91	12.09%	1.33%
오하이오	6	89	6.74%	1.30%
플로리다	14	82	17.07%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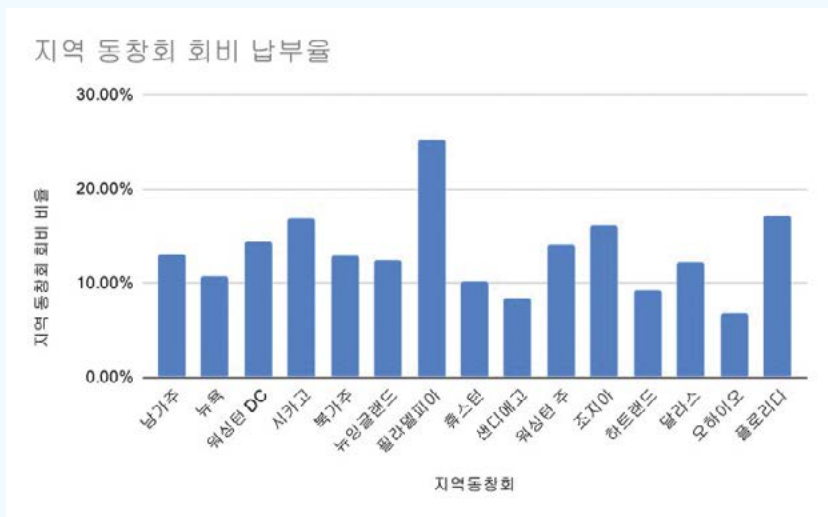
아래는 각 지역 동창회의 회보 발송 회원 숫자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회보 발송 숫자와 회비를 내시는 분들의 숫자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 집계에 포함된 15개 지역들의 회보 발송 숫자와 회비 회원 숫자를 비교했을 때 큰 지역 동창회들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비를 내시는 회원의 숫자를 회보 발송 회원 숫자와 비교했을 때 지역 동창회의 크기와 회비 내시는 회원 숫자의 비율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아래의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특히 필라델피아의 회비 참여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시카고, 조지아, 플로리다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창 회보를 받아보지 않는 아직 미발굴 동문님들의 이름과 주소를 더 모아서 구독자 숫자를 늘리는 일과 함께 동문 회보를 받아보시는 동문님들이 회비 납부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힘을 모아 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통계를 내면서 회비 외에 후원금에 대한 숫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2019년도에 발송되고 있는 동창 회보 숫자를 각 지역별로 집계하여 정확한 숫자를 다시 만들어 내고, 또 동창 회비를 포함한 후원금에 대한 통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를 후원하는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창회비 (2019/07 - 2020/06): \$75
- 동창회비 (2020/07 - 2021/06): \$75
- 일반 후원금과 Brain Network 후원금은 액수 제한 없음
- 종신 이사회비: \$3,000 이상
- 골드 이사: \$10,000 이상
-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 모교 발전기금: 액수 제한 없음

후원하는 방법은 미주동창회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수표를 미주동창회 사무실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후원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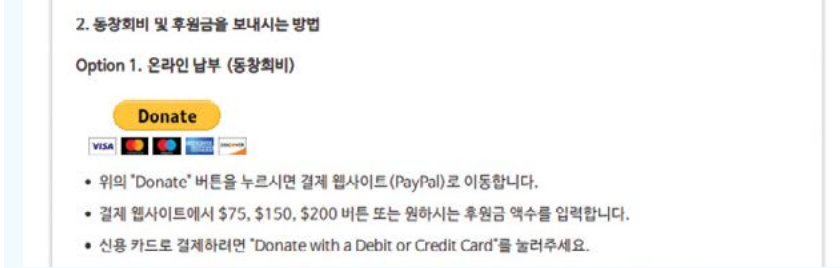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1.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웹사이트 snuaa.org에 접속하여 "동창회비 후원금"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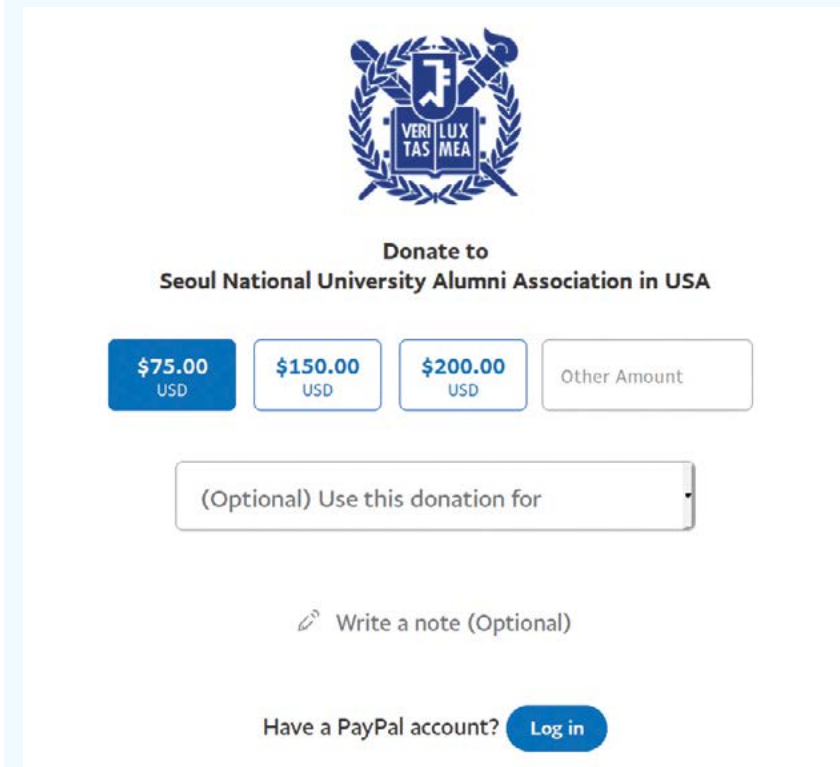
를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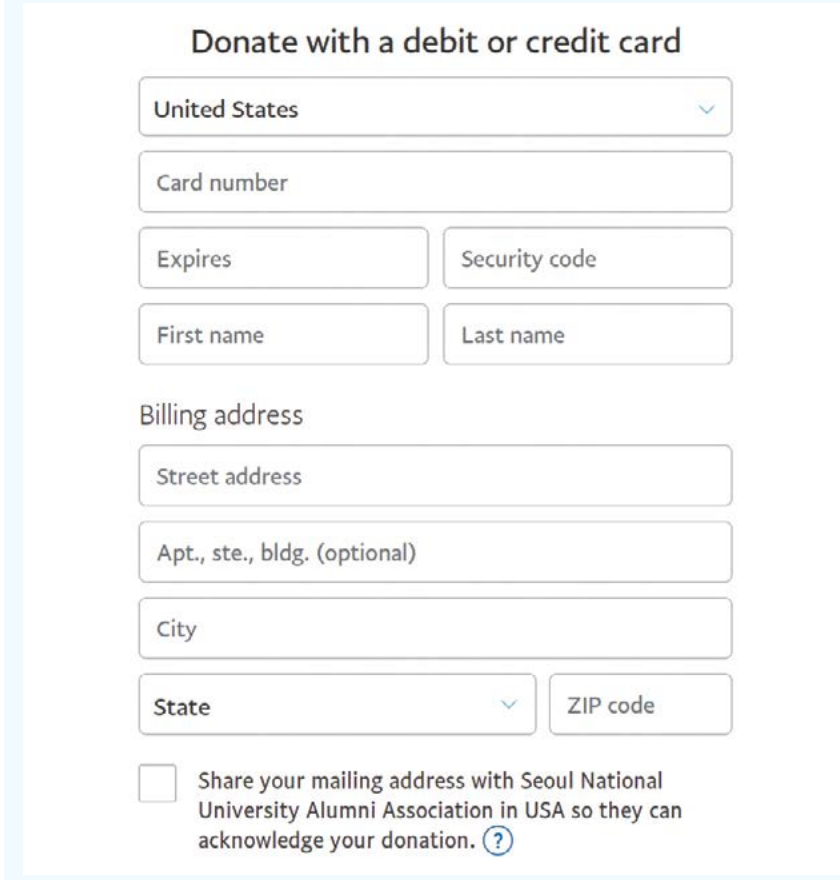
2. 동창회비 및 후원금 페이지에서 노란색 Donate 버튼을 눌러서 PayPal 후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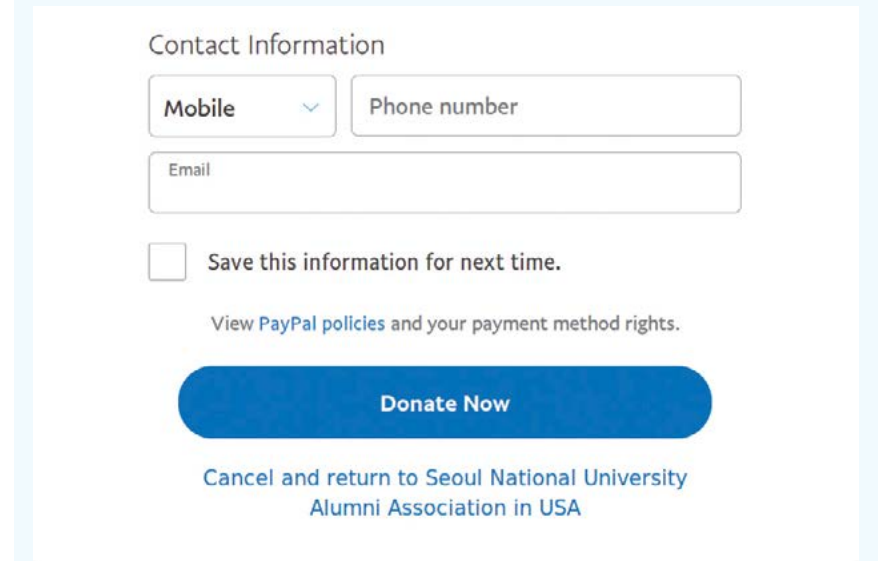
3. 서울대 로고가 있는 PayPal 화면이 나오면 가) 동창회비 또는 후원금 액수를 선택한다. \$75, \$150, \$200 중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후원 액수를 적을 수 있습니다. "Write a note"란에 이름, 출신 단과대, 입학 년도, 전화 번호, 기부금 내역을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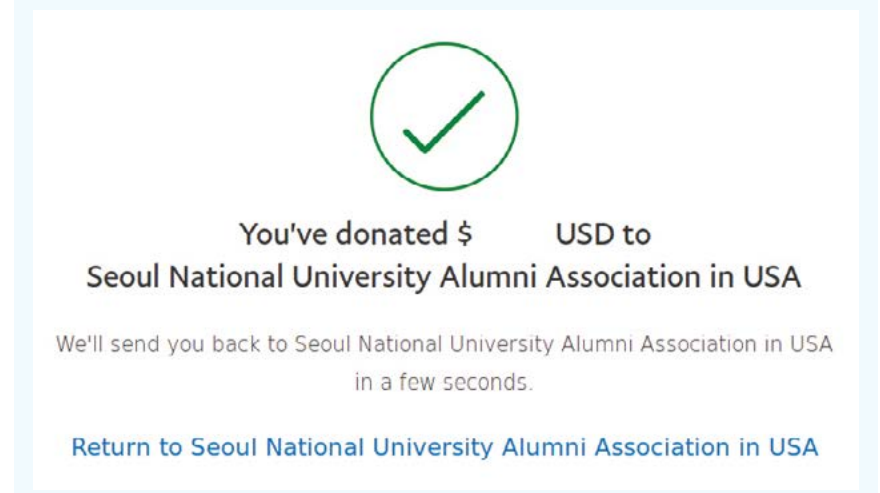
나) Credit 또는 debit 카드의 내용을 기입하고, billing address 를 적습니다. 동창회 가 내 주소를 알 수 있도록 선택 사항을 표시합니다.



다) 맨 아래에 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Donate Now"를 누르면 후원이 됩니다.



4. 그 다음에 후원한 액수가 잘 보내졌다고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5. 몇 초 후에 후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미주 동창회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 수표를 미주동창회 사무실로 보내는 방법

1. 후원하는 수표를 보내실 때 별도의 종이에 동문님의 성함, 출신 단과대, 입학 년도, 전화 번호, 기부금 항목을 적어주십시오.
2. 수표의 수취인(payable to)은 SNUAA-USA 입니다.
3. 동창회 사무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UL-2,  
Flushing, NY 11358

후원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는 전화 718-463-3131 또는 이메일 finance@snuaa.org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정홍택 (상대 60)

## 엄마, 내 밥에

## 머리카락 있잖아

옛날 옛날 깊은 산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사람이 많이 살지는 않지만 사람과 동물들, 모두 사이좋게 지냅니다. 숲 속 한 가운데에는 동화 속같은 집이 한 채 있고 거기 한 처녀가 살고 있었죠. 동물들은 이 처녀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음씨가 아주 곱기 때문이에요.

또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주 특별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 이렇게 세 식구죠. 그런데 이들은 땅 속에 살아요. 좋은 땅을 골라 굴을 파고 그 끝에 따뜻한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방 중앙에는식탁보 칸 식탁도 준비했어요. 벽에는큰 거울이 하나, 마진편에는 세 식구 가족사진 액자도 걸려있네요. 누구일까요 이 가족이? 바로 지렁이 가족이랍니다.

어느 날 저녁 이 세 식구가 저녁먹으러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첫 숟갈을 뜨시자 엄마, 아들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별안간 꼬마 아들의 얼굴이 새빨개지며 소리를 뱉지르지 않았어요.

“엄마, 내 밥 속에 머리카락 있어. 머리카락!” 아빠 엄마가 아무 말이 없자 꼬마는 더 화가 났어요. 아주 큰 소리로 신세타령을 합니다. 평소애 깊이 간직했던 불만이 폭발했어요. “지겨워. 지겨워. 지렁이 인생이 너무 지겨워.” 마구 몸을 떨기까지 하네요.

“우리 지렁이는 하등 동물 중에서도 제일 골짜 아니. 먹이사슬 중에서도 밑바닥이고 말야. 새들도 우릴 잡아먹고, 물고기도 좋아하고... 지렁이가 도대체 뭐냐말야. 수명을 갈 수 있냐. 캠핑도 못가고 하이킹은 꿈도 못꾸고..... 이게 사는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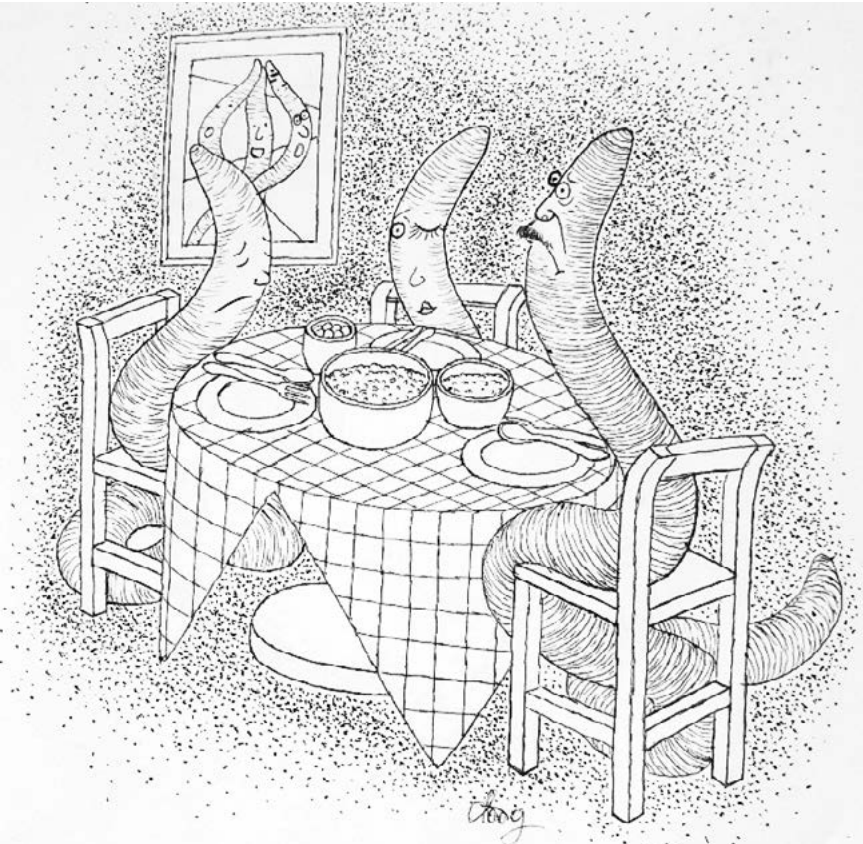
아들은 바닥에 침을 탁 뱉습니다. 평소애 어려워 하던 아버지도 눈에 안보이나봐요. “그것 뿐인가? 우리 땅 위에 나가지도 못해. 장마가 쳐서 이 방에 물이 다 차야 잠깐 나갈 수 있어. 그러다가 해만 반짝 나뉘. 금방 길에서 말라 죽지.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도대체 뭬데? 그저 땅 속에 굴을 파면서 돌아다니는게 전부잖아? 밤낮 쓰레기 같은 흙만 먹고 살아야 해. 아침에도 흙. 점심에도 흙. 저녁에도 흙. 흙, 흙, 흙... 오늘 저녁엔 이 흙 속에 머리카락까지 섞였네. 더 이상 못참겠어. 왜 난 지렁이로 태어난거지, 응?”

아, 불쌍한 아들 지렁이... 애길 끝내자, 푸욱 한숨을 쉬고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머리를 뒤로 제쳐버렸습니다. 두 눈에는 주루루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아요. 엄마도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돌려 아빠를 쳐다 봅니다. ‘무슨 말 좀 하세요. 제발! 간절함이 눈에 가득합니다. 오늘 저녁만해도 아들의 표정이 처음부터 시무룩한 것 같아 일부러 은

쟁반까지 꺼내 상을 차렸는데 말이죠.

아빠 지렁이는 아들의 푸념을 듣기만 하십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렁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시기도 하죠. 이윽고 아빠가 파이프의 재를 톡톡 털고 새 진흙 담배를 꼭꼭 채워 불을 붙이고 나서 입을 여셨습니다. “자, 자, 자. 잘 들어보렴, 아들이! 아빠가 식탁에서 이렇게 진지하신 적이 전에 있었나? “너도 이제 많이 컸구나. 버릇장머리가 없기



는 하지만... 오늘은 용서해 주마. 그리고 재밌는 애길 하나 해줄게!” 아들은 얼굴을 찡그립니다. 또 공자 맹자 타령이 나오겠구나 ...

몇 년전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숲 속에 과거로 지은 작은 집에 예쁜 처녀가 살고 있었던 다. 이름은 해리엣(Harriet)이고 마음씨는 더욱 고왔지. 매일 꿈속같이 행복했어. 왜냐고? 집밖의 자연을 보렴. 풀과 나무 그리고 동물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었어.

불이 한창인 어느 날 오후, 해리엣은 산책을 하고 싶어졌지.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를 놀라게 할까’ 문을 나서니 제일 먼저 신선한 공기가 해리엣을 반겼어. 두 팔 높이 올려 심호흡 하며, ‘나무야, 풀들야, 고마워. 공기가 이렇게 달고 맛있을 수가 없어.’

해리엣의 기분이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지. 공기란 맑고 건조하면 모든 동물들의 신경을 자극해서 붕 뜨게하는 느낌을 준단다. 낮에

식물들은 산소를 만들어 동물들에게 선사하는데 이 산소는 생명의 떡이기도 하지. 시체들까지도 좋아해. 그들은 빨리 썩고 싶어하거든. 그래야 부패해가는 비참한 꼴을 빨리 감출 수 있지. 그 뿐인가? 악취도 없애주지. 만일 공기가 이런 일을하지 않으면, 사방에 시체가 쌓이고 고약한 냄새 때문에 밖에 나갈 수도 없을꺼야. 해리엣은 맑은 공기에 춤추듯 길을 갔단다.

다람쥐들을 만났어. 다람쥐들은 해리엣을 보자 무서워하지 않고 주위에 동그렇게 모여 들었지. 해리엣은 돌아다니며 도토리들을 주어 나누어 주면서 하는 말, ‘너희들은 정말 너무너무 귀여워.’

사실 해리엣은 아주 중대한 사실 하나를 모르고 있었단다. 이 다람쥐들은 ‘그레이(Grey)’라고 하는 회색다람쥐(Grey Squirrel)였지. 그런데 그레이들은 토종 다람쥐가 아니고 외부에서 온 침략자였어. 진짜 원주민 다람쥐는 붉은 색이 감도는 레드 다람쥐(red squirrel)야. 이 레드(Red)들은 그레이보다 몸체가 작고 등부터 꼬리까지 예쁜 줄무늬가 있고 수

들도 팔랑대며 거어다니는 벌레들을 끌어들이 곤 끈이로 발을 묶어 녹여먹지. 작은 새들은 나뭇가지 사이를 날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척 하지만 날카로운 눈과 주둥이는 실재없이 두리번 거리며 먹이를 찾지. 그런가 하면 하늘 높이에선 매들이 천천히 돌며 숲 속 작은 새들을 노린단다.

이런 실상을 모르는 해리엣은 주위 경치에 취해서 즐겁기만 한거야. 이번에는 풀밭이 기다리고 있었지. 땅을 내려다보니 수많은 개미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하얀 개미열을 나르고 있지 않겠나. ‘아마야, 귀여운 것들 보게. 저 미물들도 질서있게 한 줄로 행진하며 자기 알들을 나르고 있구나.’

‘자기 알을 나르고 있다고? 흥, 모르는 소리. 사실은 말이다. 이 개미들이 나르고 있는 알들은 다른 개미종족의 알들이란다. 개미들도 전쟁을 한다는 사실을 아니? 이기면 다른 종족의 개미들을 노예로 삼기도 하고, 그들의 알을 강탈해 부화(孵化)시켜 새개미로 부려먹지. 여기 해리엣이 보는 개미알도 전쟁을 해서 뺏은 획득물이지. 그것을 자기 굴로 옮기고 있는 중이었던다.’

해리엣은 계속 걸어서 새들이 노래하는 곳에 다달았지. ‘아, 즐거운 새들의 노래는 나르는 천사들의 합창임에 틀림없어. 글썄, 새들이 즐거울 때 뿐이지. 또 왜 노래부르는지 알아? 이것은 자기들끼리의 통신방법이야. ‘애들야, 여기 지렁이들이 많아. 와서 같이 먹자 아니면 ‘저 위 매를 조심해. 혹은 ‘저기서 사람 새끼들이 총 들고 온다. 다들 숨어. 새들도 가끔 욕을 한단다. 예쁜 소리로.

“아빠, 해리엣인가 뭐가 하는 아가씨 얘기 좀 그만 해요. 하나도 재미없어..’ 아들 지렁이가 큰 소리로 아버지 말을 막았습니다. “딱정벌레가 날아가다가 꿈에도 그리던 천국같은 새 땅을 발견했다던지 하는 신나는 얘기 같은거나 해주세요.” “시끄러. 아버지가 이야기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거야. 좀 참어.” 아버지는 조금 억징이 나신 것 같아요. 아들은 조용해졌어요. 입을 삐죽거리며...

또 한참 걸어가노라니 발 밑에 두꺼비가 넉죽하게 앉아 해리엣을 뺨히 쳐다보지 않겠나? ‘옛날 동화가 생각이 났지. 처녀가 두꺼비에게 키스를 했더니 왕자로 변했다는 그런 동화 말이야. 해리엣은 배를 땅에 대고 옆드려 두꺼비 얼굴에 가까이 대고 말했지. ‘여보세요. 미스터 두꺼비, 제가 키스해도 될까요? 왕자님이 되면 날 꼭 왕궁에 데려가야 해요.’ 다행히 정말 키스는 하지 않았어. 만일 키스했다면 우리 얘기는 여기서 끝났을꺼야. 두꺼비는 통상 그 피부에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거던. 하마터면 큰 일 났뻔했지.

“여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참고 들어도 재미가 없네.” 엄마 지렁이는 몸을 길게 늘리며 큰 허품을 합니다. ‘어서 빨리 끝내요’ “다 상관있어서 하는 얘기로. 조금만 더 들으면 아주 재미있는 끝장이 날테니까. 그리고 이런 해피 엔딩(Happy Ending) 이야기야.”

그러나 해리엣이 보고 감탄한 들판이 실은 처참한 전쟁터였단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죽고 죽이는 살벌한 생존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다. 꽃과 향기와 꿀로 벌과 나비를 유혹해 꽃잎을 오무려 잡아먹고, 잎

아빠는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여전히 시무룩히 조용합니다.

이제 해리엣도 피곤해졌어. 배도 고파오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해 갔지. ‘오늘 받은 축복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었단다. 이 때였어. 걸어가던 해리엣의 눈이 왕만큼 커지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어. 놀랄 일이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거야. ‘아, 어쩔 이런 일이...!’ 길 가운데에 큰 뱀이 파리를 돌돌 틀고있었는데, 아, 글썄, 그 가운데 그레이(회색 다람쥐) 한 마리가 활떡거리고 있는거야. 뱀이 입을 짝악 벌리니 날카로운 이빨, 길다란 혀가 날름거리며 막 삼키려 하고 있어.

“저런, 저런” 해리엣은 곁에 있던 굴은 나뭇가지를 집더니 용감하게 뱀에게 달려갔지. “예! 이 나쁜 놈. 이 똥덩이 맛 좀 봐라. 예! 예! 예!”

큰 뱀은 몽둥이로 머리를 정통으로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 해리엣은 얼른 다람쥐를 들어올렸단다. 싸움은 끝났어, 머리통이 깨진 뱀은 축 늘어졌고, 다람쥐는 해리엣의 손 안에서 여전히 숨을 활떡이고만 있었지.

“자, 안심해. 난 살았어. 이제 자유다!”

기쁨의 환호를 지르며 손에 있던 그레이를 높이 들어올려 큰 키스를 하고 내려 놔지. 그레이는 고맙다는 표시도 없이 숲 속으로 달려가 사라져 버렸어. 뱀 주위에는 개미들이 벌써 새가망개 물려들여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다.

해리엣은 행복했어. 너무 좋아서 자기 머리 뒤에 오로라가 무지개처럼 펼쳐지는 착각을 할 정도였지. ‘나도 이제 평화의 사도야’하고 외쳤어. 주위 나무들과 산들이 메아리로 화답해 주었고... 손길감에 너무너무 도취해 눈물이 주루루 흘러나왔어. 손을 얼굴로 가져가 눈물을 쓰욱 닦았지. “저녁먹고 싶etz 자야!”

다음 날 깨어난 해리엣은 어제의 해리엣이 아니었어. 미처버렸어. 잊져버 실려준 다람쥐는 바로 ‘광란병 바이러스’의 숙주였단다. 이 바이러스가 다람쥐의 털에 붙어 살고있다가 해리엣의 손으로 옮겨갔지. 눈물을 닦으려 손이 눈에 닿으니 바이러스 균은 눈으로 들어가 밤새 온 몸에 퍼졌단다. 아침에 일어나 해리엣은 밖에 나와 소리소리지르고 춤추며 길로 숲으로 마구 뛰어다녔어. 미처날뛴다가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그만 길가 바위에 머리가 부딪히며 쓰러졌단다.

“그래서 죽었다 말예요?” 아들 지렁이는 눈을 크게 뜹니다. 아빠는 자랑스런 눈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는 뜻이죠.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재미가 있다고 그래요? 원, 난 끔찍하기만 한네” “아직 내 이야기 초점을 맞추지 못한 것 같아.” 하시며 긴 상체를 주욱 늘여서 아빠 얼굴을 아들에게 닿을 듯 가져 갑니다. “해리엣은 자연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큰 잘못이야. 치명적이기도 하지. 그리고 아빠는 몸을 줄여서 자기 의자에 깊숙히 앉아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해리엣은 자칭 자연사랑애 앞서 생각할게 있었어. 먼저 자연을 이해(理解)해야만 했지.

## 제28차 평의원의의 (6/21~23/2019) 수입 및 지출 보고

수입		
Donation	후원금	\$2,500.00
Seoul Alumni Donation	후원금	3,000.00
Registration Fee	평의원 참가비	11,200.00
*Membership Fee	*구독료	1,350.00
West Point Tour	투어 비용	1,900.00
<b>Gross Profit</b>	<b>총수입금</b>	<b>\$18,600.00</b>
*구독료는 이번 행사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았음.		

지출		
Appreciation Fee	강사료	\$1,200.00
Double Tree Hotel	평의원 행사 비용	29,300.21
Gallery Tour & Tip	미술관 투어	300.00
Photographer	사진사	500.00
Staff Meeting Expense	음식	152.00
Stationery	사무 용품	82.06
Thayer Hotel Brunch	투어 브런치	2,803.97
Transportation	의전 교통편	959.50
Transportation Tip	운전사 팁	250.00
<b>Expense Total</b>	<b>총지출금</b>	<b>\$35,547.74</b>
	<b>총수입금</b>	<b>\$18,600.00</b>
	<b>총지출금</b>	<b>\$35,547.74</b>
	<b>총계</b>	<b>\$(16,947.74)</b>
*부족한 금액 \$16,947.74 는 신용남 회장의 donation으로 충당했습니다.		

## 카네기 축하음악회 (6/22/2019) 수입 및 지출 보고

수입		
Donation / Advertising	후원금 / 광고	\$45,190.00
Tickets	티켓 판매금	9,900.00
Adjustment / Carnegie	카네기 지불 차액	4,018.60
<b>Gross Profit</b>	<b>총수입금</b>	<b>\$59,108.60</b>

지출		
Advertising	신문 광고	\$1,500.00
Transportation	카네기 교통편	4,295.00
Flower	화환	325.88
Flyer	광고 안내지	200.00
Performers & Tickets	공연료	2,300.00
Office Supplies	사무용품	525.33
Pamphlet Design Fee	디자이너 비용	1,500.00
Printing	팜플렛 인쇄	1,391.10
Phill Harmony Boston	공연료	12,100.00
Playbill	공연 프로그램	125.00
Postage and Delivery	기타 우편료	454.87
Poster	포스터	79.87
Food	리허설 음식	279.00
Venue	카네기 홀 대여료	27,395.00
<b>Expense Total</b>	<b>총지출금</b>	<b>\$52,471.05</b>
	<b>순수익금</b>	<b>\$6,637.55</b>
순수익금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기금의 특별기부금으로 예치될 것입니다.		



2019년 7월 1일 이후, 동창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보내실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payable to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uaa.org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차 회기: 2019. 7. 1 ~ 2020.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Table with columns for '전회장단 이월금', '업소록 광고비', '후원금', '특별 후원금', '모교발전기금', '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장학금'. Includes sub-sections like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텍사스', etc.

동창회비 (1차 회기: 2019. 7. 1 ~ 2020.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2차 회기까지 내신 분

Table listing members and their dues. Columns include member name, address, and dues amount. Includes sub-sections like '남가주', '뉴욕', '캘리포니아', etc.

동창회비 (1차 회기: 2019. 7. 1 ~ 2020.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2차 회기까지 내신 분

Table listing members and their dues. Columns include member name, address, and dues amount. Includes sub-sections like 'OR/ID',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etc.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Table with columns: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cludes checkboxes and amounts for each category.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Email: news@snuua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orm for member information. Fields include: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미주 동문 업소록

<b>남가주   CA</b>
<b>공인회계사</b>
<b>Kyung Moo Kim CPA &amp; Accounting Corp.</b>
<b>김경무 (공대 69) 공인회계사</b>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b>AAMKO Consulting Co.</b>
<b>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b>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b>이강원 공인회계사</b>
<b>이강원 (인문대 76)</b>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b>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amp; Business Consultants</b>
<b>강호석(상대 81), 김낙구(상대 67), 강동순(법대 59)</b>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b>STANLEY Cha, CPA</b>
<b>차기민 (공대 85)</b>
T: 818-772-2811, 213-272-2460 /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b>임춘택 공인회계사</b>
<b>임춘택 (상대 68)</b>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b>김원철 &amp; 황기주 공인회계사</b>
<b>김원철 (농대)</b>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b>권국원 공인회계사</b>
<b>권국원 (공대)</b>
T: 213-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b>기계 / 기술 / 전자</b>
<b>Turbo Air, Inc.</b>
<b>서치원 (공대 69)</b>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b>Tayco Engineering, Inc.</b>
<b>정재훈 (공대 64)</b>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ess, CA 90630
www.taycoeng.com

<b>Leedco Engineers, Inc.</b>
<b>이종도 (공대 66)</b>
T: 626-448-7870 / F: 626-448-3955
leedco@aol.com
3870 Baldwin Ave., El Monte, CA 91731
<b>Link TV Media</b>
<b>김원탁 (공대 65)</b>
O: 818-514-6780 / M: 818-720-2373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b>마켓</b>
<b>Han Nam Chain Market</b>
<b>하기환 (공대 66)</b>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b>변호사</b>
<b>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b>
<b>한태호 (인문대 75)</b>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b>신혜원 변호사</b>
<b>신혜원 (사대 81)</b>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b>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b>
<b>이경희 (인문대 83)</b>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b>부동산</b>
<b>Team Spirit Realty</b>
<b>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b>
T: 714-396-0624 / jenniec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b>식품 / 음식점</b>
<b>자연나라 (Jayone Foods, Inc.)</b>
<b>이승훈 (상대 74)</b>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b>해태 USA (Haitai Inc.)</b>
<b>정정우 (수외대 74)</b>
T: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b>의료 / 병원</b>
<b>Seoul Medical Group</b>
<b>차민영 (의대 76)</b>
T: 213-480-7770 / 877-764-1405
520 S. Virgil Ave., #103, LA, CA 90006
<b>VIP 성형외과</b>
<b>최광휘 (의대 70)</b>
T: 323-965-1717 / F: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b>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b>
<b>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b>
<b>Christopher K.Chung MD</b>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b>Beverly Cardiology Group</b>
<b>Il Young Kim MD (의대 65)</b>
<b>Diana Kim MD</b>
T: 323-662-1175 /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b>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b>
<b>정수만 (의대 66)</b>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b>의료 / 약국</b>
<b>CareMax Pharmacy</b>
<b>유창호 (약대 74)</b>
C: 909-229-7777
California Korean-American Pharmacists Asso.
<b>Gilbert Pharmacy</b>
<b>최무식 (약대 66)</b>
T: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b>나성 약국</b>
<b>임낙균 (약대 64)</b>
T: 213-387-3030
3030 W. Olympic Blvd., #118, LA, CA 90006
<b>의료 / 치과</b>
<b>황준오 DDS</b>
<b>황준오 (치대 73)</b>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b>Seonho Ha Prosthodontics</b>
<b>하선호 (치대 81)</b>
T: 213-365-1008 / ddsst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b>의료 / 동물병원</b>
<b>Animal Medical Clinic</b>
<b>신동국 (수외대 76)</b>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b>Francis Animal Hospital</b>
<b>최재현 (수외대 66)</b>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b>Richmond Veterinary Hospital</b>
<b>한상봉 (수외대 67)</b>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b>Van Buren Animal Hospital</b>
<b>오영문 (수외대 64)</b>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b>유통 / 운송 / 원자재</b>
<b>SeAH Steel America, Inc.</b>
<b>이병준 (상대 55)</b>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b>자동차 / 서비스</b>
<b>A.P.W. 자동차 부품</b>
<b>서동영 (사대 60)</b>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b>재정 / 보험 / 컨설턴트</b>
<b>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p.</b>
<b>조임현 (간호대 72)</b>
T: 213-487-3253 / im.cho@axa-advisors.com
3435 Wilshire Blvd. Suite 2500, LA, CA 90010
<b>Mirae Asset Wealth Mgmt. (USA) Inc.</b>
<b>최경석 (사대 80)</b>
D: 213-262-3805 / M: 213-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b>기타</b>
<b>한국트러피 / 한국타올사</b>
<b>박양중 (문리대 61)</b>
T: 213-380-2775
3475 W. 8th St., #100, LA, CA 90005

미주 동문 업소록

<b>ACCU Construction, Inc.</b>
<b>염동해 (농대 74)</b>
T: 714-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b>라 캐나다 한인교회</b>
<b>독곡원 (공대 65)</b>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b>San Bernardo Foot Clinic Inc.</b>
<b>이상대 (농대 80)</b>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b>북가주   CA</b>
<b>정보 / 서비스</b>
<b>두리하나 결혼 정보</b>
<b>정지선 (상대 58)</b>
T: 510-224-0760 / 1durihana@gmail.com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b>뉴욕   NY · NJ</b>
<b>공인회계사</b>
<b>KL CPA &amp; Associates LLC</b>
<b>이경림 (상대 64)</b>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b>리테일</b>
<b>New York Golf Center</b>
<b>이전구 (농대 60)</b>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b>변호사</b>
<b>신응남 변호사</b>
<b>신응남 (농대 70)</b>
T: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 UL-2, Flushing, NY 11358
<b>의료 / 병원</b>
<b>백승원 위장내과</b>
<b>백승원 (의대 73)</b>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b>석창호 위장내과</b>
<b>석창호 (의대 66)</b>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b>이창석 내과</b>
<b>이창석 (의대 72)</b>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b>박범열 소아과</b>
<b>박범열 (의대 75)</b>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b>박종효 소아과</b>
<b>박종효 (의대 79)</b>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b>윤세웅 비뇨기과</b>
<b>윤세웅</b>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b>이혁엽 알러지 전문의</b>
<b>이혁엽 (의대 73)</b>
T: 201-568-3800 / 718-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 #LD, Flushing, NY 11354
<b>김치갑 통증병원</b>
<b>김치갑 (의대 73)</b>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b>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b>
<b>김승관 (의대 70)</b>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b>의료 / 치과</b>
<b>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b>
<b>김성래 (치대 76)</b>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b>의료 / 동물병원</b>
<b>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b>
<b>김기택 (수외대 81)</b>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b>유통 / 운송 / 원자재</b>
<b>American Int'l Line, Inc.</b>
<b>윤병하 (농대 80)</b>
T: 718-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b>워싱턴 DC   MD · VA</b>
<b>기계 / 기술 / 전자</b>
<b>Drivetech, Inc.</b>
<b>엄달용 (공대 69)</b>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b>식품 / 음식점</b>
<b>우래옥</b>
<b>백행남 (문리 60)</b>
T: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www.woolaek.com
<b>의료 / 치과</b>
<b>이준영 치과</b>
<b>이준영 (치대 74)</b>
T: 301-220-2828 / 301-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ID.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b>재정 / 보험 / 컨설턴트</b>
<b>C &amp;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b>
<b>정세근 (자연대 82)</b>
O: 703-663-8400 / C: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b>Fairway Asset Corporation</b>
<b>남옥형 (경영대 84)</b>
T: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ioan.com

<b>필라델피아   PA</b>
<b>건축</b>
<b>Timothy Haahs &amp; Asso.</b>
<b>손재욱 (생활과대 77)</b>
T: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b>의료 / 치과</b>
<b>Blue Bell Family Dentistry</b>
<b>김순주 (치대 95)</b>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b>식품 / 음식점</b>
<b>이즈미 일식당</b>
<b>최종문 (공대 61)</b>
T: 267-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b>오레곤   OR</b>
<b>엔지니어링</b>
<b>Flonomix Inc.</b>
<b>박희진 (농대 78)</b>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5대 미주동창회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Feb-Jan
	차기회장	민일기 (약대 69)	562-547-2110 davidmin920@g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곽준경 (법대 75)	650-656-7683 joon.kwa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July-Jun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이강원 (공대 66)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Jul-Jun
	차기회장	김정선 (문리 66)	617-780-7205 jkim@systemic.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룩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930-7360 sejins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신욱인 (농대 87)	619-726-7820 wookin.shin@cbpnt.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김병윤 (문리 65)	847-951-3297 jacobkimby@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장윤일 (공대 60)	630-305-8792 ychang@anl.gov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전병택 (상대 65)	bryancho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Jan-Dec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정병희 (공대 71)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Jul-Jun
	차기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25-9390 sangkeunpark@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철 (공대 72)	425-786-4766 sungyul04@comcast.net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Jan-Dec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조정현 (수의 58)	856-685-9762 jcac4610@gmail.com	Jul-Jun
	차기회장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n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오명순 (가정 69)	913-709-2334 msoonbae@gmail.com	Sep-Aug
	차기회장	이치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umkc.edu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권오을 (상대 56)	y.kwon@griffith.edu.au	Jan-Dec
	부회장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종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 오홍조 (치)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종 (상) · 오인환 (문) · 손재욱 (가정) · 명예회장: 윤상래 (수)

**제15대 회장: 신웅남 (농)**  
고문: 박중수 (수), 주중광 (약)

차기회장: 노명호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  
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집행부**  
사무총장: 이창길 (자연) 대리  
총무 국장: 문현호 (음), 간사: 이지희  
재무 국장: 한경진 (음)  
IT 국장: 이창길 (자연)  
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신웅남 (농), 고문:**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곽상희 (문), 이희만 (간)  
편집 위원:  
한경수 (문), 추재욱 (의), 최철용 (농), 연봉원 (문), 최한용 (농)  
송홍길 (신문), 조달훈 (사), 최형무 (법), 이수호 (보), 백옥자 (음)  
홍선례 (음), 허유선 (가), 이창길 (자), 문현호 (음), 한경진 (음)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백옥자 (LA)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해암 (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연봉원 (문), 이재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홍묵 (문), 김재훈 (공), 김지영 (사), 최형무 (법), 이종호 (인)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웅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웅남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웅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 (상)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 투자를 통해 성장한 기업, 미래에셋이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 미래에셋에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다양한 투자 기회를 경험하세요.

**Services offered** Wealth Management and Investment Banking

**최경석(사대 80)**  
상담 및 문의 (213) 262-3800  
(213) 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os Angeles, CA90010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is a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This message is solely for informational purposes. Advisory services are only offered to clients or prospective clients where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and its representatives are properly licensed or exempt from licensure. Past performance is no guarantee of future returns. Investing involves risk and possible loss of principal capital. No advice may be rendered by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unless a client service agreement is in place. Member FINRA, SIPC.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하겠습니다!**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74)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since 1999 **듀오USA**

**결혼해 듀오**

www.duouusa.net 213-383-2525(LA) 201-242-0505(NY)





www.nmbonline.com

**Neighborhood Free Checking <sup>1)</sup>**

- ✓ 계좌개설 최소금액 \$25
- ✓ 개인 체크북 무료
- ✓ 잔고유지 조건 면제
- ✓ 무료 온라인 banking Bill Payment

**Neighborhood Business Checking <sup>2)</sup>**

- ✓ 계좌개설 최소금액 \$100
- ✓ \$150 상당 체크북 패키지 무료
- ✓ 최초 50개 Check Fee 면제
- ✓ Daily Average Balance \$500 유지시 월 수수료 면제

**NMB Super Saving <sup>3)</sup>**

- ✓ 연이율 1.75%
- ✓ 계좌개설 최소금액 \$10,000
- ✓ Daily Balance \$100 유지시 월 수수료 면제

# 등직한 친구, 든든한 파트너

뉴밀레니엄 은행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백승원 (의대 73)

최인진 (인문대 75)

**Fort Lee HQ**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400, Fort Lee, NJ 07024  
**201-585-6090**

**New Brunswick**  
57 Livingston Avenue  
New Brunswick, NJ 08901  
**732-729-1100**

**Fort Lee**  
1620 Lemoine Avenue  
Fort Lee, NJ 07024  
**201-944-1110**

**Palisades Park**  
136 Broad Avenue  
Palisades Park, NJ 07650  
**201-944-1983**

**Dallas LPO**  
2727 LBJ Freeway, Suite 740,  
Farmers Branch, TX 75234  
**972-803-5388**  
**972-803-5824**

**Bayside**  
209-2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347-836-4914**

**Manhattan**  
312 Fifth Avenue 3rd Floor  
New York, NY 10001  
**212-239-1023**

**Flushing**  
141-26 Northern Blvd  
Unit 28, Flushing, NY 11354  
**(Coming Soon)**

**Atlanta LPO**  
3235 Satellite Blvd., Bldg. 400  
Suite 300, Duluth, GA 30096  
**770-291-2198**



1) To open the account, you must deposit at least \$25.00. 2) To open the account, you must deposit at least \$100.00 to open this account. A minimum balance fee of \$20.00 will be imposed every statement period if the daily average balance in the account falls below \$500 3) Rates are variable based on tier, and subject to change any time without notice after account opening. The Minimum daily balance required to earn the advertised Annual Percentage Yield(APY) and to open a Super Saving Account is \$10,000.00 but the minimum daily balance \$100.00 is required to avoid a \$3 monthly service charge. 1.75% APY applies to the entire account balance for accounts with daily balances of \$10,000.00 or more; a 0.25% APY applies to the entire account balance for accounts with balances less than \$10,000.00. A \$15 Withdrawal Limit Fee applies for each withdrawal or transfer out in exceed of six. Fee may reduce earnings. Offer may be discontinued without notice and other restrictions may apply.